

## 남가주한인목사회 신임회장 박효우 목사 취임

남가주 7천여 목회자를 섬기기 위한 남가주한인목사회(이하 목사회) 제44대 신임회장 박효우 목사가 공식 취임했다. 목사회는 28일 미주성산교회(담임 방동섭 목사)에서 이취임식 감사예배를 드리고 전임회장 이

성갑과 지원, 협력 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박 목사는 “작은 교회 부흥을 위해 연합 대각성 집회와 전도용품 지원, 신년 달력 지원, 목회자 영성 훈련을 위한 기도모임과 세미나, 2011년 3월 윤석전 목사 초청

지난 한 해 동안 ILP(I Love Pastor)운동을 지속해 목회자를 존경하자는 캠페인을 벌여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회, 목회자들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목사회에서 ILP 운동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란다”



(좌) 남가주한인목사회 전임회장 이정현 목사, 신임회장 박효우 목사.

### ◎ 박효우 목사, 작은교회 지원과 목회자 영성 회복 힘쓸 것

정현 목사(빛과소금교회)가 신임회장 박효우 목사(풍성한교회)에게 회장직을 승계했다. 박효우 목사는 “지난 44년간 남가주한인목사회를 이끌어 오신 선배 목회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특히 원로 목회자들과 작은교회 목회자들을 섬겨 남가주 교계 전체가 큰 힘을 얻도록

평신도 대각성 집회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취임사를 전했다. 또한 박 목사는 “어려운 이민 교회 목회 현장에서 목회자를 섬기며 수고하는 사모들을 위한 ‘사모위원회’를 설립해 목회자와 사모들을 위한 위로와 지원 사역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취임사를 전한 이정현 목사는 “

고 했다. 이 목사는 “목사회가 항상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와 협력하여 교계 연합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감사예배는 김영대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엄규서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부회장)의 기도, 목사장로찬양단의 특별찬

양, 석태윤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증경회장)의 설교, 민중기 목사(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와 김재연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증경회장)의 축사, 표세홍 목사(LA교역자협의회 회장)의 격려사, 기념패전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LA시장을 대신해 축사를 낭독한 레오나드 잭슨 목사(LA시장 시니어 어드바이저)는 “목사회는 로스앤젤레스의 문화적, 영적 성장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 한인회 증경회장의 설교, 민중기 목사(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와 김재연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증경회장)의 축사, 표세홍 목사(LA교역자협의회 회장)의 격려사, 기념패전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LA시장을 대신해 축사를 낭독한 레오나드 잭슨 목사(LA시장 시니어 어드바이저)는 “목사회는 로스앤젤레스의 문화적, 영적 성장을

OC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박용덕 목사는 “목회자란 영적리더요, 교계와 지역사회, 나아가 민족의 리더이기도 하다”며 “리더에게 필요한 영성과 결단력, 추진력, 겸손함, 친화력 등의 덕목을 두루 갖춘 박효우 목사가 앞으로 목사회를 발전시켜나갈 것을 믿는다”며 “무엇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은 박 목사를 통해 목사회와 남가주 교계 전체가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재일 기자)

## 남가주 연말 맞아 문화 이벤트 풍성

### 이웃 사랑 나눔 콘서트 및 합창단 공연 개최

한해가 마무리되는 12월, 남가주 각 문화단체들이 그동안 준비해온 문화 이벤트가 풍성하게 마련된다. 12월 4일(토) 오후1시와 오후7시에는 '2010 사랑의 콘서

트 및 복음화성회'가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 목사)에서 개최된다.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박효우 목사)가 개최하는 이번 콘서트는 외롭고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 축복교회 담임 김정훈 목사가 강연을 전하며, 축복교회 소속 연예인들의 간증과 찬양 시간이 마련된다. 출연진은 탤런트 허준호, 김사랑, 김보성, 가수 업



타운, 원티드 등 축복교회 연합 공연단 80명이 출연한다. 213-327-9496 12월 5일(주일) 오후6시 30분 중현선교회(담임 민중기 목사)에서는 '미주 사랑의 쌀 나

눔 음악회'가 열린다. 음악회는 월드미션대학교 음악과장 윤인상 교수의 지휘로 LA 코리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월드미션대학교 챔버 콰이어가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엘리아'를 연

주할 예정이다. 콘서트는 미주 한인사회와 기독교계가 힘을 모아 한 가족 쌀 한포 10불 후원 모금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이다. 213-384-5232 12월 12일(주일) 오후 7시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LA챔버 콰이어(단장 오승일, 지휘 이정욱 교수)는 바하 B단조 미사 전곡을 바로크 음악 전문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바로크 시대 연주 형태를 그대로 재연하여 올바른

연주의 표본을 제시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공연 티켓은 20불이며 당일 구매도 가능하다. 626-825-7686 12월 17일(금) 오후 7시30분 또감사선교회에서 비전 시각장애인센터(대표 추영수 목사)가 주최하는 '제3회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학기금마련 음악회, 성탄과 기쁨의 캐롤의 밤'이 열린다. 시각장애인들 후원을 위한 티켓은 20불. 213-480-8560 (지재일 기자)

##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삼성이 하염 없습니다

##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 크로버 탄소매트

탄소 (Carbon) 함유량?

숯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미래형 소재로서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시켜 다른 온열매트에 비해 열 효율이 높아 절전형이다. 숯에서 나오는 원적외선, 음이온 및 항균, 탈취, 항습효과가 뛰어난 건강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웰빙(Well Being) 소재이다.

문의전화

**Crover Inc**

323-588-7277

WWW.CROVERGREEN.COM

**QUEEN \$ 349**

**KING \$ 429**

전기선 없음

원적외선 복사열

물세탁 가능

취침가능

**전기선이 없는 건강기능성 매트**  
매트안에 전기선이 없는 매트를 보셨습니까? 이제 그 과학이 기술로 실현 되었습니다. 매트안에 전기선을 걸어내고 그대신 탄소섬유원단이 들어가 있어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전자파 테스트를 통과하여 전자파가 없음을 입증 하였습니다.

**전자파 걱정은 이제 그만! 매트안에 전기선이 없어 더 안심**  
꿈의소재 "탄소섬유"가 기존 전기선을 없애고, 품격있는 친환경 소재인 카본 탄소섬유 발열체를 통해 피부에 느끼는 온열효과가 높고 열이 공간으로 고르게 방사되는 복사열 가열방식이어서 안방,침실에 따사로운 온기가 전해집니다.

**원적외선 발산에 의한 복사열**  
카본 탄소섬유 발열체에서 방사되는 열은 전기선의 인위적인 열이 아닌 원적외선 복사열이 발산 되므로 선조들의 따뜻한 온돌방처럼 훈훈한 온기를 깊숙히 느낄 수 있습니다. 원적외선 발산에 의한 숙면,항균,공팡이 억제 및 냄새제거에 탁월한 친환경 제품입니다.  
원적외선 방사율 (90%), 탈취기능 (84%), 항균기능 (99%)

**세계 최초 전기 제품중 유일하게 물세탁 (세탁기) 이 가능한 신제품**  
세계 최초 4개의 발명특허로 이루어낸 탁월한 내구성과 방수절연이 가능한 특수 4중 "안정코팅"으로 세탁 후 건조하여 사용할수 있는 건강기능성 카펫이요, 물기있는 곳은 스스로 전원이 차단되므로 감전의 위험이 없고, 완전히 건조 후 전원이 전열되는 시스템의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깊은 숙면을 취하실수 있도록 도와주는 취침가능**  
두 사람이 잠을 잘때 자기 체온에 맞는 온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난방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한쪽만 사용할 시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가져올수 있는 분리구조형으로 설계 되어 있습니다. 난방1, 난방2를 선택하여 누르시고 취침가능 버튼을 누르며 숙면 할수 있는 최적의 온도 35℃ (±2℃) 를 유지시켜 줍니다. **난방 기능이 10시간 이상 지속될 시 자동으로 꺼집니다.**

'Crover' 는 'Cross' 와 'Clover' 의 합성어로 십자가의 행복을 의미 합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선교에 쓰여집니다.

**LA**  
Sweet Dream (213)389-2828  
김스전기 (213) 386-4882  
정스 백화점 (213) 385-1111  
ABC 플라자 (213) 386-1155  
헬스코리아 (213)-487-4986  
아씨마켓 (323)-733-4986  
캘리포니아

**가디나**  
Marukai (310)660-6300  
**트렌스**  
네이버스 (310)326-6666  
**세리토스**  
이블타운 (562)402-3737  
H Mart 내 (323)-733-4986  
캘리포니아

**가든그로브**  
이블타운 (714)530-6378  
아리랑 마켓 옆  
**샌디에고**  
이블타운 (656)496-0766  
샌디에고 시온마켓 내  
**애난데일**  
Spring Water (571)228-2260  
**아틀란타**  
바이엔조이 (770)-232-7846

**시카고**  
Hi-Mart (773)478-0007  
**타코마**  
팔도월드 (253)581-7800  
신신백화점(253)582-2975  
**뉴욕**  
아씨한복(718)886-8106



28일, 12월 5일 '조국의 평화 위한 기도의 날' 지정

남가주 교계, 북한 연평도 도발 규탄 선언문 채택

남가주 한인교계가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 조국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로 결의했다.

남가주 교계 지도자들은 24일 남가주교회협의회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규탄 선언문을 채택 "대한민국의 본토를 포격하는 것은 휴전 이후 60년 동안 전례가 없는 사건"이라며 "이는 평화를 깨뜨린 무력도발이며 야만적 공격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경제적인 지원과 협력을 확대시키고, 이산가족의 순방과 교류를 더욱 확장시키려고 하는 작금의 분위기 속에서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한 것은 민족의 연합과 화해 및 통일이라는 명제와 인도주의적인 원리를 적극적으로 훼손하는 무모한 것"이라며 "북한 내부의 문제를 극복하고 교착상태의 외교적 현상타파를 추구하는데 대한 심각한 저해행위"라고 지적했다.



남가주 교계 지도자들이 24일 교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연평도 사태 관련 성명문을 발표했다. 아래 왼쪽부터 OC목사회 회장 손태정 목사, OC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박용근 목사,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민중기 목사, 수석부회장 변영익 목사, 부회장 백지영 목사. ©지재일 기자

손하는 무모한 것"이라며 "북한 내부의 문제를 극복하고 교착상태의 외교적 현상타파를 추구하는데 대한 심각한 저해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같은 사태에 대응하여 28일 시작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그 대응의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북의 추가도발 사태를 촉발시킬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남가주 온 교계와 신자들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함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평도 포격 사건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전 남가주 한인교회 성도들이 함께 11월 28일과 12월 5일을 특별히 '조국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기도의 날'로 선포했다.

이에 11월 28일과 12월 5일 주일예배시, 담임 목회자의 인도로 조국의 평화를 위해 통성기도를 드린 후, 대표 기도가자 유가족, 조국의 통일, 북한의 북핵, 동북

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기도하도록 각 교회 담임 목회자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중기 목사는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21장 30-31절)'라는 제하에 짧은 메시지를 전했다.

민 목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므로 연평도 포격사건의 위기와 불안의 상황을 바꾸셔서 오히려 이를 통해 민족에 큰 은혜가 임하는 기회가 될 것을 믿는다"며 "함께 조국을 위한 기도를 드리자"고 말했다.

(지재일 기자)

4차 연말 특별 새벽부흥회 28일 시작...14일간 진행

연방 및 주정부 지원으로 High School 졸업생에게 \* 짧은 현장실습을 통해 알찬 직업을 추천합니다. LAORT 대학 / 저소득층 영어 컴퓨터 전액 무료 직업교육 보조금 지급

동부사랑의교회 '금수하러 기도하라!'



'현재의 고난을 기도로 극복하자'는 특별 새벽부흥회가 동부사랑의교회(담임 박승규 목사)에서 28일(주일) 시작됐다. 총 14일간 진행되는 동부사랑의교회 특별 새벽부흥회는 박승규 담임목사를 비롯해 박형은 목사(달라스빛나리교회), 오석환 선교사(V2R미션대표), 김요셉 목사

(원천교회),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손인식 목사(베델한인교회), 박수웅 장로(가정사역 전문가), 신호범 의원(워싱턴 상원 의원) 등이 강사로 나서 부흥회를 이끈다. 박승규 목사는 "올해로 4차를 맞이하는 연말 새벽부흥회가 교회의 문화가 되어가는 듯하다"며 "우리가 맞이하는 어려움

을 영적인 회복으로 극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박승규 목사는 특히 "새벽에 2세들과 함께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신앙의 훌륭한 유산과, 건강한 영성이 2세들에게 역사하게끔 간절히 기도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11월 29일~12월 1일까지는 1.5세 목회자이면서 2

세 사역에 상당한 경험을 가진 박형은 목사가 강사로 나서게 된다. 박 목사는 나성영락교회 EM 사역을 12년간 담당해온 바 있다.

박형은 목사는 29일 새벽 설교에서 "2세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90~95%가 교회를 떠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부모들의 신앙 때문"이라며 "주일신앙이나 새벽신앙만 하면 안 된다"고 도전했다.

박형은 목사는 "아무리 훌륭한 신앙이라도 후손에게 물려주지 못한다면 교회는 사라질 것"이라며 "우리가 미칠 수 있는 최고의 영향력이면서 최고의 선교자가 자녀"라고 전했다.

동부사랑의교회는 새벽부흥회 기간 동안 성도들에게 안수기도를 베풀고 있다.

(박삼미 기자)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종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해성 발행인 : 조요한 편집국장 : 이재일 광고국장 : 이인규 지사망 : LA, NY, SAN FRANCISCO,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SEATTLE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광저우 아시안게임 감동의 순간 아이토크비비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야구팀 금메달의 쾌거! 아이토크비비가 쓴다! 3개월 무료! 행사기간 11월 8일(일) ~ 12월 12일(일) 까지 연장됩니다

이·이·도·크·비·비 iTalkBB 로컬/장거리/한국 포함 국제전화 무제한! 지금 가입하시면, 3가지 혜택이 공짜! 1. My Korea Number 마이 코리아 넘버 2. iTalkGlobal 아이토크글로벌 3. 개통비 \$29.99 면제 \$0

아·이·도·크·비·비 iTalkBB 1-800-872-2902 [아이토크비비 사업자 모집] 모집 대상: 인터넷전화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 또는 기존 매장내 신규 아이팀을 추가하고자 하시는 분

교수 연봉 지급에 대해 이의제기 수 있습니다. 연봉 지급 시 환경에 따라 통폐합하여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기간 내 서비스 이용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본인 신원 확인을 위해 본인 신원 확인을 해야 합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고객센터에 문의하십시오.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 30분(EST) 1-800-872-2902 연례(휴일) 배정입니다.



# “영적인 성경 말씀 실제적 언어로 전달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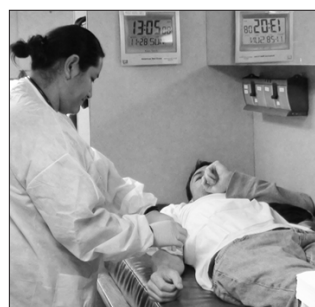
고 있다. 아름다운교회에서 제작한 성경공부 교재를 사용중이라는 양택호 목사(조이커뮤니티교회 담임)는 “교회에서 수많은 성경공부, 제자양육 프로그램을 시도했으나 어떻게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가에 대한 교수법에 대한 문제를 발견한 후 아름다운교회 믿음 성경공부 교재를 사용해 성도들에게 깊은 성경의 깨달음을 주었다”고 전했다.

풀러동문회 박동건 회장은 “풀러 포럼은 목회자 개인이 소유한 목회 전략과 노하우, 자료 등을 서로 공유하고 이를 각 교회에 적용해 성장과 발전을 함께 이뤄나가기 위한 모임”이라며 “풀러신학교 동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풀러 한인 M.Div. 동문회는 2011년 3월 21일(월) 미주 한인 목회자를 위한 ‘풀러 목회-신교 컨퍼런스(가칭)’을 개최해 목회, 신학의 자료와 노하우 제공을 위한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지재일 기자)

# 유엔 글로벌 프로젝트팀 헌혈 행사 벌여



임에도 불구하고 미 적십자사와 함께 헌혈 행사를 참여하여 이민자 커뮤니티도 적극적으로 헌혈에 동참하여 미국 사회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렸다. 특히 한인 이민자들이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헌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 행사를 진행했다. UN Global Project팀은 학부모 자원 봉사팀과 함께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 반까지 몇 개의 조로 나누어 직접 헌혈을 하고 또 헌혈을 하기 위하여 참여한 참가자들을 도우며 모범을 보였다.

나이야 키, 몸무게 등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인 및 라티노 등 여러 커뮤니티의 헌혈자들이 참여해 성공적인 헌혈 행사를 마쳤다. 이번 행사 미 적십자사 담당자인 Ethel은 필요로 하는 혈액 중 O형이 가장 부족한데 공교롭게도 이 O형의 혈액은 한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혈액형이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민자 단체들이 많이 늘어나기를 희망했다. 뉴호프 UN 글로벌팀 오한나 코치는 “이민자들도 사회적 경제적 도움을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 여러 방법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재일 기자)

## 제3차 풀러 포럼 아름다운 교회서 개최

풀러 한인 M.Div. 동문회가 지난 11월 29일 아름다운교회(담임 고승희 목사)에서 ‘제3차 풀러 포럼’을 개최했다.

‘동양사상과 포스트모던을 넘어서서 크리스천 영성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2차 포럼에 이어, 이번 주제는 새가족 성경공부(양택호 목사, 풀러동문회 증경회장)와 영생의 확신을 주는 믿음 성경공부(고승희 목사, 풀러동문회 증경회장)로 마련됐다.

고승희 목사는 “누구나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 과연 믿음의 구체적인 개념이란 무엇인지에 대

한 질문이 있었지만, 그것을 설명해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목회자는 항상 성도들에게 영적인 메시지만 성경 말씀을 일상의 언어로 재해석(Operaton Definition)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교가 일상의 언어로 재해석되지 않을 경우, 설교가 단지 허공을 치는 듯한 메시지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은혜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 받은 선물로 전달하여 성도들의 실제 삶의 언어로 깊은 깨달음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고승희 목사는 “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에도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관계성에 개념에서 접근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전해야 한다”며 “초신자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에 대해 그들의 언어로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아름다운교회는 고승희 목사가 제작한 믿음, 영적전쟁, 복음, 내적치유, 기도 등에 대한 교재로 성경공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생뒤집기’라는 전도초점 집회를 개최해 불신자를 위해 재미(Fun)와 다이내믹(Dynamic),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찬양과 간증, 성경 말씀 시간을 마련해 불신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

**교회 행사 용품을 한곳에서**

배너, 포스터, 교회, 임직패, 감사패, 트로피, 명찰 일체

간판부 Tel : (626) 965-6997  
행사용품부 Tel : (626) 810-2621  
19241 E. Colima Road, Rowland Heights, CA 91748

동부사인&트로피

**메디케어 수혜자 들게 알립니다!!**

CA LIC #0G67882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HMO)**

- 치과 • 처방약 • 한방침술 • 안경
- 헬스클럽 멤버십 • 해외여행
- 응급시 혜택 • 교통편 제공 등

무료상담 : 213-503-6897 (폴선)

**10k, 14k, 18k, 24k**

**최고가에 매입합니다**

**금매지 213-908-0854**

충장한영 3960 Wilshire Blvd. #406 (월서+월턴)

**백경환목사성가 작곡 발표회 성황**

“미주 한인사회에서 8회에 걸쳐 성가 작곡 발표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신작 칸타타 한 아들을 주셨네 는 이번 크리스마스를 더욱 풍요롭게 할 음악적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주신송가공회 회장 박재호 목사-

제8회 백경환 목사 성가작곡 발표회가 지난 28일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다. 발표회에는 가나안교회 성가대와 한인기독합창단, 바리톤 장상근, 소프라노 이지은, 테너 전승철의 은혜로운 성가곡과 독창곡이 다수 연주됐다. 2부 순서로는 크리스마스 칸타타 ‘한 아들 주셨네’를 백경환 목사의 지휘 아래 한인기독합창단과 독창자들이 연주했다. 칸타타는 전체 7곡으로 구성됐으며 ‘새 언약을 세우리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이름 임마누엘’ 등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묘사하고 있다.

백경환 목사는 “하나님께서 지난 50년간 창작의 은사를 주셔서 찬양할 수 있었다”며 “영감을 주셔야 가능한 성가 작곡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지재일 기자)

우리의 실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제 3 회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학기금마련 음악회

**성탄과 기쁨의 캐롤의 밤**

출연진: Solists  
임혜정 Music Instructor in City of Rancho Cucamonga Recreative Dept.  
정화영 전 바디메오중창단멤버  
김진이 H.S.M. 찬양사역자  
그외 ...  
한광호 장애를 딛고 일어서 전 언론인  
김영미 H.S.M. 피아니스트  
이성원 시각장애 Computer Science 전공

H.S.M. 찬양선교단  
Youth Choir 하늘빛찬양팀 (지도 남현선)  
Vision Trio

일시: 2010년 12월 17일 (금) 오후 7시 30분  
장소 및 후원: 또감사선교교회 1440 N. Spring St. Los Angeles, CA 90012  
주최: Hope Sight Mission 비전시각장애인센터 (213) 480-8560 (213) 392-1030

www.hopesight.org



‘인도선교 동역자’ 찾아...한인교회의 기도와 후원 부탁하기도

# 이정태 선교사 “인도에 1%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이런 헌신과 결단은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주의 부르심”이라고 짧게 답했다. 목회를 하기 위한 목사가 아니라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쓰임받기 위해 목사가 된 것이다.



이정태 선교사. ©지재일 기자

인도를 위한 복음의 행진을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인도 북부지역 이정태 선교사가 미국을 찾아왔다.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협력할 동역자들을 찾기 위해서다.

지난 2006년 인도로 들어가 개척을 시작한 이정태 선교사는 4년여 만에 인도 북부지역에 6개의 교회와 현지 리더들을 교육하기 위한 1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기에 이른다. 인도 선교사로 들어가기 전 한국에서 했던 외국인근로자 선교사역이 큰 도움이 됐다. 그때 만난 근로자들 중 본국으로 돌아간 이들이 있었고, 그들과 극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선교에도 불이 붙기 시작했다.

개척한 교회 중 한 곳은 성도들이 100여명으로 늘어났고, 예배할 처소가 필요하게 됐다. 여러 동역자들의 협력으로 예배당을 지어갈 즈음 ‘외국인들이 돈을 들여 건물을 짓는다’는 소문이 지역 힌두인들에게 퍼지게 됐고 그때부터 환란이 거세졌다.

교회의 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던 힌두 정치인들이 땅을 빼앗기 위한 온갖 모략을 시작했고 2008년부터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에는 승소했지만 결과에 불복한 힌두인들은 이정태 선교사와 가족에게 밤낮으로 위협과 협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결국 정글 속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 선교사 가족은 두 달 만에 나왔지만 건축 중이던 건물은 모두

“제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민족은, 제게 허락하신 그 민족만큼은, 단 1%의 가능성만 있다고 하더라도 목숨을 다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 인도 북부지역 이정태 선교사

무너지고 폐허가 된 상태였다. 그로부터 후원은 끊어지게 되고 상황은 점점 나빠졌다.

“최선을 다했지만 힌두인들의 위협이 계속 되었습니다. 또한 극도로 힘들어진 재정 상황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아내 이주현 선교사의 건강상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식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안식년을 원해본 적 없었지만 그는 가족들과 함께 지난 9월 한

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인도 북부지역에서 함께 선교할 선교사들과 기도의 동역자, 후원협력 교회들을 찾기로 했다.

이정태 선교사는 인도 북부 케시미르 분쟁지역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려 한다.

6개 교회의 개척도 이곳으로 들어가기 위한 베이스캠프 사역이었다. 세워진 6개 교회는 현지의 사역자들이 목회하며 현지인들을 중심으로 사역이 안정되어

가고 있다.

“결국 자국민의 손으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현지 목회자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가 떠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의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 다시 개척하려고 합니다.”

내년 2월 인도로 돌아가는 이정태 선교사는 북부 히말라야산속 케시미르 레(Leh) 지역으로 들어간다.

히말라야산 속이기 때문에 9월부터 눈이 내리면 이듬해 5월까지 모든 진입경로가 차단되는 지역이다.

“눈 때문에 선교나 봉사를 하던 팀도 철수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8개월 간 이 지역 주민들도 품쌀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번 Leh지역 선교를 위해서 한국의 한 청년이 헌신하기로 했다. 비록 단기간이지만 헌신된 동역자 덕분에 외롭지 않고 더욱 힘이 난다. 이정태 선교사는 인도를 위한 예비 선교사, 미국 현지인, 청년 등 6개월에서 1년간 팀워크를 이루어 사역할 사람들을 더 찾고 있다.

“교회의 생명은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현지에서 전략적으로 사역을 분배하여 동역한다면 훨씬 효과적인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들의 아낌없는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국가와 지역과 인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니까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인도 지역을 가슴 깊이 품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http://www.india.go5.kr>

연락처: 010-9371-2140(한국), 91+9910404960(인도)

이메일: j980823@hanmail.net

후원: 303-44902-266(시티은행), 173901-04-099596(국민은행)

(박상미 기자)

##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을 위한 ‘햇불기도회’

### 햇불선교센터 75회 중보기도회 개최



햇불선교센터 부원장 이윤승 목사

서영석 장로(나성한인교회, 전 LA 한인회장) 라크레센타 밸리 타운의원 당선 축하예배가 지난 19일 JJ그랜드호텔에서 진행됐다.

2개월이라는 짧은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타운의원에 무난히 당선된 서영석 장로는 “하나님께서 라크레센타를 섬기라고 선택하셨다”며 “지역 한인들과 타민족간의 교류 협력, 차세대 한인 리더 배출에 힘쓸 것”이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축하예배는 표세흥 목사(LA 교역자협의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됐

며, 김호 목사(미주 대한신학대 부총장)의 기도, 변영익 목사(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수석부회장)의 설교, 유용열 목사(미주 대한신학대 대학원장)와 박효우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의 축사, 박영창 목사(남가주 교협 증경회장)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서영석 장로는 내달 16일(목) 취임식을 가진 후 내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박상미 기자)



### 따뜻한 사랑의 담요를 홈리스에게...

소중환사람들(대표 김수철 목사)이 지난 23일 LA 다운타운에서 9년차 사랑의 담요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소중환사람들은 지난 2002년부터 매년 LA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감사절을 기해 홈리스들에게 코리안 커뮤니티의 사랑을 전해 왔다. 지난 9년간 2만 5천여장의 담요를 라스베가스, 시카고, 워싱턴DC, 필라델피아, 하와이, 서울을 비롯한 북한, 미얀마, 멕시코 등 해외에도 전달한 바 있다. 올해 1차 담요나누기는 새로

구성된 소중환사람들 이사진(이사장 최대영)의 지원으로 마련돼 100장의 담요와 또감사선교교회 무명의 성도가 기부한 100장의 침낭(Sleeping Bag)을 200명의 홈리스들에게 전달했다.

한편 소중환사람들 측은 “신년 초까지 진행되는 나눔 행사에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사랑의 담요 나누기는 한 장당 \$10을 소중환사람들로 보내면 된다”고 전했다. 문의) 323-810-0691, 714-837-3188

(지재일 기자)


① 차량 구입하시면서 다운페이먼트 없으세요?  
 ② 무슨 차종을 선택할까 고민이세요?  
 ③ 낮은 페이먼트 원하세요?  
 ④ 크레딧이 나쁘세요?

**지금 전화 하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PH**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11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이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용차, 차종 설정, 저렴한 페이먼트

**FLEET MANAGER 찰리 정**  
 ☎ 213-276-8959  
 e-mail : usajyk@gmail.com



# 리폼드대학교 신학대학원

과 목	내 용	기 간
컴퓨터강좌	개강 및 첫 강의. 12월2일(목)	매주 수요일(5주), 낮강좌 10-12시, 2시-4시, 저녁강좌 8-10시
교회실용음악 강좌	개강 및 첫 강의. 12월8일(수) 기타 강좌	매주 수요일(5주), 낮강좌 10-12시, 2시-4시, 저녁강좌 8-10시
건축기술 강좌	〈미국건축기초1〉 1. 미국건축구조개요 2. 실내벽 3. 실외벽 4. 지붕 5. 문, 창문  〈미국건축기초2〉 1. 프러밍 2. 전기 3. 타일 4. 마루 5. 페인트	매주 화요일, 12월7일 - 2월8일 (1차-2차 강의 10주)
언어연수 강좌	히브리어(초급, 중급, 고급)	(매주 월, 화, 목, 7주) 12월27일 - 2월10일 저녁 7:30-10:20
거울방학 영어캠프 실용영어강좌	대상: 초3 - 중3 생활영어가 필요하신 분	1월10일 - 2월10일 (5주) 1월 3일부터 오후6시

☞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100% 장학금을 적용합니다. 특히 (은퇴 원로 목사님 환영)

☞ 개인 노트북을 가져 오셔야 교육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리폼드대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합동총회 인준 신학교로서 1976년도에 설립되어 칼빈신학 사상에 기초한 개혁신학의 정통성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관, 성경중심 신앙관, 개혁주의 신앙, 목회와 선교의 열정을 갖춘 선한 정치자로 봉사하는 사명자를 양성하며, 미주지역의 복음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독교 지도자 육성 교육기관입니다.

**리폼드대학교 신학대학원** 1342 W. Adams Bl. Los Angeles, CA 90007-1635  
 Tel : (818)337-8280 E-Mail : socr113@hotmail.com

**컴퓨터 활용 과정**

- ◆ 기초반(5주)  
이 정도는 알아두고 넘어 가세요
- ◆ 중급반(2주)  
생활속의 인터넷, 엑셀
- ◆ 중 고급반(2주)  
MS, 오피스

다양한 컴퓨터 활용을 배우는 강좌(4)  
 활용강좌: 미니홈피  
 디카반  
 사진 슬라이드  
 디지털 음악  
 동영상  
 다운로드반  
 사진활용  
 스마트폰  
 아이패드

- ◆ 전문반(4주)  
엑셀  
파워포인트  
프레쉬  
일러스트레이터  
웹디자인  
PC정비  
퀵북 실무
- ◆ 퀵북반(6주)

◆ 일 정 : 2010년 12월 2일(목) 시작  
오전10시, 오후 3:30, 8:00

◆ 접수마감일 : 수시접수

◆ 장 소 : R.U.S 컴퓨터 교실



[새벽강단 27] 중앙연합감리교회 새벽예배

#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한국교회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새벽예배. 한국교회 부흥의 첫 번째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척교회부터 대형교회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의 신앙성숙과 더불어 부흥을 소망하는 곳에는 새벽예배의 열기가 더욱 뜨겁다. 이에 기독일보는 남가주 한인교회들의 새벽 설교를 집중 조명하여 새벽 제단에서만 내리는 특별한 은혜를 나누고 개교회를 넘어 지역과 미주 전역의 부흥을 함께 소망하고자 한다.

이 서론을 통해 시편 전체를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탄식하는 시라고 할지라도 복 있는 사람의 시각,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됩니다.

세상에는 탄식할 일이 많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일도 많습니다. 1절...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그리 많은지요 합니다. 살다보면 여러 사람 만납니다. 그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 관계를 맺고 살지만 누구든지 변해서 나의 대적이 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원수요 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맘이 편하지 않아서입니다. 나의 잘못이기

3절에 나오듯이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이다. 대적하는 자 많고 그 가운데 두렵고 외롭지만 하나님 계시며, 그 하나님 한분으로 넉넉하다고 고백합니다.

밖에서 놀던 아이가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가 대답하면 밖에서 계속 놀 수 있지만 엄마의 응답이 없으면 불안해서 놀지 못합니다. 엄마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이는 여호와 하나님 한분입니다. 두려워 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대적이 일어나 나를 치러 올라와도 거룩한 산에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십니다.(4절)

## 중앙연합감리교회 황승일 목사 "탄식 중에도 하나님만 바라라"

중앙연합감리교회(담임 황승일 목사)는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았다. 세상 풍파의 거친 바람에도 40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만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황승일 목사는 "원수 대적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에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며 "그분을 의지하여 믿음의 시련을 극복하라"고 권면했다.

〈본문: 시편 3편〉  
시편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겪고 있는 고통을 열거하며 탄식하는 탄식의 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탄식의 내용입니다. 대개 시편 1, 2편을 두개의 서론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황승일 목사

때문입니다. 잘못된 눈을 가지고 보면 대적이 많습니다. 또한 아무 이유없이 나를 음해하거나 대적하기도 합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치러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탄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나를 대적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말이 더 무섭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는 말처럼 무서운 말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다고 하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 있을까요?

그러나 시편에서 다윗은 이러한 탄식과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본문의 6절부터 보십시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나 혼자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은 나 혼자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알리고 함께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라고 했습니다. 나 혼자 누릴 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만 의지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상미 기자)

# 성도들이 옥합 깨뜨려 '주님의교회 완공'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저마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남가주주님의교회(담임 한의준 목사)는 성도들이 가진 귀한 옥합을 깨뜨림으로 1년 만에 성전건축을 완공하게 됐다. 12월 19일(주일)은 새 성전에서 드리는 첫 감사예배가 될 예정이다.

복잡한 건축 규정과 허가 문제는 그 규모를 떠나 완공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단 한번의 거절이나 연기되는 일이 없었고, 불경기에도 성도들의 기꺼운 헌신은 착공 1년 만에 완공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했다.

한의준 목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이루 말할 수 없구요. 경기불황으로 당초 예산보다 적게 들어 건축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착공하기 전부터 성전 건축을 위한 시도와 계획이 있었지만 추진하지 못한 터였다. 또한 예배당부터 교육관까지 건축의 규모는 훨씬 큰 상태였다. 그러던 중 한의준 목사가 부임하고 1년여 만에 건축을 시작하게 됐고, 당초 계획과 달리 예배당을 먼저 완공하고 차후에 교육관을 짓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한의준 목사는 교회의 이름을 동부연합감리교회에서 남가주주님의교회로 바꾸었다. 주님의 몸 된 교회로서 주께서 전적으로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한 참된 교회로서의 회복을 위해서였다. 또한 동부라는 지역성을 남가주로 넓



남가주주님의교회 담임 한의준 목사

## 한의준 목사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히고 나아가 세계와 민족을 섬기는 교회가 되고자 함이다. 한 목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울 수 있는 교회"라는 의미도 크다고 했다.

남가주주님의교회는 이 때문에 성전을 대폭 개방할 계획이다. 예배뿐만 아니라 미국의 커뮤니티나 한인사회의 모임장소로도 활용하고 지역사회의 문화공간으로도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은 세상속의 교회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다. 한의준 목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섬김과 나눔을 통한 것입니다. 교회 건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들 통해 더 큰 나눔과 섬김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열매에는 장학금을 출현해서 학생들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 목사는 오늘날 한인교회

제 2의 이스라엘이라 불릴만한 영성과 자질은 많다고 했다. 하지만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삶으로 녹아져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연약한 것에 안타까워했다. "세상과의 소통과 접촉에 약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섬기고 함께 호흡할 필요가 있지만,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정체성과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모습은... 그 자체로 세상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앙이 곧 삶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런 그의 생각은 미국인 교회에서 8년간 목회한 경험이 큰 영향을 주었다. 한 목사는 미국인연합감리교회에서 8년간 담임목회하며 미국의 문화를 깊이 체험했다고 한다. 한국교회처럼 거대하고 역동성 있는 교회들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지탱하는 신앙의 저력을 느꼈기 때문이다. "삶이 신앙이고 신앙이 곧 삶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의 삶의 철학과 가치가 신앙으로부터 근거해 큰 즐거움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교회도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봐야합니다."

남가주주님의교회에 부임한 지 2년여만에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교회의 이름도 바꾸었다. 쉽지 않은 일을 단기간에 해 나가면서 성도들과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으로 무릎을 꿇었다. 이 같은 열정과 저력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고 불드시는 주님의 손길" 때문이라고 했다.

한의준 목사는 교회의 성장도 필요하지만 "은혜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먼저 믿는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말이다. "의무감과 습관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행복과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또한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라면 건강하게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남가주주님의교회는 오는 12월 19일 새 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린다. 지난 1년간 베푸신 은혜를 깊이 묵상한 후 내년 2월, 손님들을 초청해 감사와 축하의 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박상미 기자)

**결혼과 영주권 신청 합쳐서 \$700**

▶ **싼요금 이혼 \$250부터**

- 속성 결혼신고 \$130
- 가족초청 \$190
- 영주권 수속 \$600
- 이름변경 \$290
- 시민권 수속 \$100
- 공증 \$10

20년을 길은 정소에서 영주권 3000건 이혼 2500건 이상을 완벽하게 처리한 사무실임

각종 이민 수속, 각종 소송서류, 면세, 전과기록 정리, 주정부 이민밴드 #CF3512 LA에서 가장 정확하게 합니다.

**가고파 김경일 법무사 (Lic#0504)**  
**T.(213)-252-0000**  
3540 Wilshire Bl.#318, L.A., CA 90010

---

**100% 믿을수 있는 대한민국 홍삼**  
**HANSAMIN**  
website : www.korginseng.com  
**Tel: (213)-384-0989**  
Free: 1-866-902-8282  
**농협고려인삼 \* DAEDONG KOREA GINSENG CO., LTD.**

**2010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를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2010년 12월 6일(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본교 소개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바쁜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South Bay Worldforce Investment Board 에 가입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창업을 지원함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통신포로도 할 수 있음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월서 + 웨스턴)

**미국 장로교 한미노회 서기 청빙**

미국 장로교에 소속한 한미노회에서 노회 서기(Stated Clerk)를 청빙합니다.

한미노회 소속이 가능하신 분으로서 노회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실 분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제출 마감**


**제출 및 문의**

① 이력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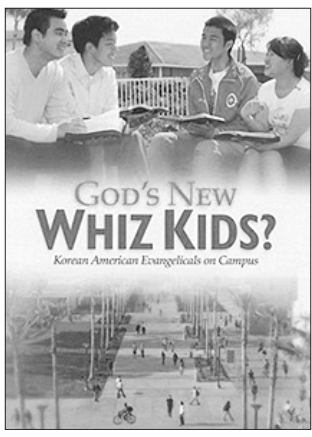
② 서기 행정에 관한 비전(Letter 크기 1페이지 분량)

**2010년 12월 18일 (토)**

**statedclerksearch@gmail.com**


**한미노회 서기 청빙위원회**





# '하나님의 새로운 귀재' 캠퍼스의 한인전도사들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한인교회를 조용히 탈출한다는 한인 2세대들이 대학에 가서는 기독교서클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베카 김 페퍼다인대 사회학 교수가 쓴 책 '하나님의 새로운 귀재들? 캠퍼스의 한인전도사들'(God's New Whiz Kid? Korean American Evangelicals on Campus)에 따르면 미국 대학, 특히 명문대에서 아시안계 미국인 학생들이 캠퍼스 기독교서클에서 다수 활동하고 있다.

하버드대 래드클리프(Radcliffe) 크리스찬 펠로우십의 70%가 아시안계이며 예일대 CCC(Campus Crusade for Christ)는 90%가 아시안계 미국인 학생들이다.

20년 전만해도 회원 100%가 백인이던 스탠포드대의 IVCF(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는 지금 회원 거의가 아시안계 학생들이다.

UC 버클리와 UCLA에는 50개 복음주의 기독교 그룹이 있고 그 그룹들 회원의 80%가 아시안계 학생들이다.

미 전역 650개 지부를 두고 있는 IVCF의 경우 회원 중 아시안계 학생은 지난 15년동안 992명에서 3,640명으로 늘었다. 267%가 성장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안계 미국인 학생들은 한인2세와 중국계 학생들을 말한다.

한인2세대들은 주로 서부와 동부 해안 대학들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UCLA에는 10개의 한인 크리스찬 헬로워프 있고 랜디 베어 UC버클리 교목은 "교내에

서 두 번째로 큰 기독교 모임인 FICB(Fellowship in Christ Berkeley)는 한인 기독교인들의 모임"이라고 밝혔다.

이런 까닭에 복음주의 기독교 커뮤니티 지도자들은 아시안 아메리칸을 '도덕적인 모델 마이너리티'(Moral Model Minority)라 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귀재들"이라고 부르고 있다. 공부도 잘하고 신앙도 좋은 젊은이들이라는 의미다.

캠퍼스 내 아시안아메리칸 크리스천들이 증가하는 이유는 먼저, 딱딱하고 권위적인 한인1세 교회를 싫어했던 젊은이들이 대 학생이 된 후 자신만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버드대 교목인 레베카 김 전도사는 책에서 기존 1세대의 방식과 상관없이 젊은이들 취향의 복음성과 주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라고 설명했다.

부모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자란 것도 또 다른 이유다. 김 전도사는 "부모님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대학생이 돼 집을 떠나도 교회생활 중심의 패턴을 따라가는 것 같다"며 "부모들이 일과 집, 교회 밖에 없을 정도로 한 신앙생활을 2세대들이 어려서부터 배우면서 부모들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밝혔다.

캠퍼스 내 기독교 서클이 이민 생활의 교회와 같이 차 라이드에서부터 스터디 그룹까지 한인 학생들이 힘들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 것도 다른 이유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캠퍼스에 보여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 때문인 것으로 소개되었다. 컬럼비아대 KCCC(Korean Campus Crusade for Christ) 회장을 맡았던 오수정 씨는 "섹스, 마약, 음주 등 유혹에 빠지기 쉬운 대학생활에서 도덕적으로

생활하는 한인 크리스천들을 보고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그룹에 가입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했다.

한가지 특징은 한인 2세대끼리만 크리스천 서클을 구성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영역 문제도 없고 미국 문화에도 익숙한 이들이 다양한 인종의 캠퍼스에서 왜 굳이 한인끼리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까? 김 교수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대학생들의 진지한 노력을 이유로 꼽았다.

"대학생 때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다시 재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를 떠나 홀로 서기를 시작하며 자아를 세우는 과정에서 '아시안'이라는 지리, 문화, 인종 배경의 동질감을 찾는 학생이 많은거죠"

유사한 문화배경과 경험으로 동병상련하는 관계도 중요한 이유다.

김 전도사는 "한인 학생들에게서 부모님들과의 관계 문제가 가장 두드러진다"며 "하버드생이라는 이유로 집안 전체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중압감으로 괴로워하는 한인 학생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적성과 관계없이 가족의 기대에 따라 앞날을 택해야 하는 학생들이 많다"며 "이런 문제를 공유하는 한인들끼리 서로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모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캠퍼스에서 한인끼리 모이는 것은 자칫 타인종에게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김 교수는 자신의 다른 논문인 '예수를 위한 아시안 아메리칸'에서 UC버클리에 다니는 미국 학생들의 예를 들었다. 캠퍼스 내 IVCF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지만 아시안들이 너무 많아 가입을 꺼린 붉은 얼굴 다른 모임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김 교수는 흑인에 대한 백인의 인종차별을 예로 들면서 타인종들이 아시안아메리칸 기독교 모임의 다른 형태나 비탄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한인 2세대들이 캠퍼스와 사회에서 모범 크리스찬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귀재'라는 말을 들을려면 다른 인종을 품어야 한다는 당부다.

(케이아메리칸 포스트 제공)

## 그라운드제로 모스크, 9.11 테러 복구기금 신청 논란

뉴욕 그라운드 제로 인근에 메가 모스크 건립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개발자들이 최근 9.11 테러 현장 복구를 위해 마련된 미국 연방 정부 기금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Park51'로 이름 붙여진 프로젝트 개발자들은 최근 그들이 로워 맨하탄 개발 조합(LMDC)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방 기금 가운데 5백만 달러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프로젝트 반대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지난 주 뉴욕 시청 앞에서 개최된 시위에 참석했던 짐 브라운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솔직하지 못하며, 그 뻔뻔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정도"라고 비난했다.

소방관 출신의 브라운은 9.11 테러 당시 초기 대응반으로 활동했다.

반대자들은 프로젝트를 개발자들이 그라운드 제로 인근에 모스크를 세우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모스크가 들어설 부지가 그라운드 제로에 속해 있지 않다고 주장해 왔으면서 9.11 테러 현장 복구를 위해 마련된 기금을 신청한 것은 모순된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LMDC측은 총 1천7백만 불이 그라운드 제로 인근 지역 커뮤니티 지원에 할당되어 있으나 Park51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배정된 기금의 10배가 넘는 총 1억7천5백만 불 가량을 요구하는 265건의 신청이 이뤄진 상태라고 밝혔다.

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단체의 목적과 조직, 프로젝트

에 대한 설명 및 예산, 일정 등을 상세히 밝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모스크 개발자들은 현재 기금 신청 이유에 대해서 이 지역 폭력 예방과 아랍어를 비롯한 타 외국어 교육, 노숙자와 이민자들을 위한 봉사 프로그램 등을 제시한 상태다. LMDC측은 신청 건들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기금 수혜 단체를 발표할 전망이다.

'코르도바 하우스(Cordoba House)'로 알려진 모스크는 1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이 안에는 무슬림들을 위한 예배 장소는 물론 탁아소와 유치원, 체육관과 9.11 테러 희생자 추모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한편 프로젝트 개발자인 샤프 리프 엘 가말은 최근 NBC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처음 이 프로



젝트를 구상했을 때 이같은 반대에 부딪힐 거라곤 생각도 못했다"며 그 이유에 대해 "한 번도 내가 가진 신앙이 이 끔찍한 테러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설문조사는 70%의 미국인들이 이슬람 극단주의에 의한 희생자들이 묻힌 그라운드 제로에서 불과 두 블록 떨어진 곳에 모스크가 들어서는 것에 반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순현정 기자)



**오토뱅크 Auto Bank**

1만달러 이하 중고차만 사고 팝니다!

고객의 요구에 맞는 차를 찾아드립니다.

충분한 워런타기간 / 교정시 지정 정비소 통한 수리 (30%OFF)

**John Ko**  
213-908-3308  
http://joencha.com

807 S. Bonnie Brae St. Los Angeles CA 90057

## 미주개혁대학 개교 20주년 기념

# I-20 (F1비자) 학생 모집 합니다

\*최신의 영상시스템 \*최상의 학업 분위기 \*최고의 교수진으로 함께 수업 합니다

▶ 모집기간: 2010년 12월1 - 2011년 1월31일까지 (이 기간 특별 우대하여 드립니다)

▶ 모집학과: 신학, 선교, 문예창작, 종교음악, 목회상담

학교주소: School Address, 2706 Wilshire Blvd 1st Fl, LA CA 90057(월셔와 램파트)

Toll Free: 1-800-281-2123, Tel: 213-736-6500 Fax:213-736-6504 / Email:refomeduniversity@yahoo.com

Website:www.refomeduniv.org



조국을 위한 특별기도회 진행



앞줄 왼쪽에서 세번째가 회장 심종규 목사

메릴랜드기독교지도자협의회 제4차 정기총회

메릴랜드기독교지도자협의회(회장 심종규 목사)가 11월 26일(금) 오전 9시 메릴랜드중앙침례교회에서 제4차 정기총회 및 조국을 위한 특별기도회를 개최했다.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그 풍량이 순풍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특별기도시간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안재욱 목사), 한국과 미국의 지도자를 위해(현피터 목사), 메릴랜드 한인 사회를 위해(최영 목사) 각각 기도했다.

임기는 2년이다'로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수정됐다. 안계수 목사는 "개정안은 본회의 협력기관인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신신복 목사)에서 회칙개정을 통해 임원의 임기가 조정됐음을 알려와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정안은 회원들의 인준을 통해 통과됐으며, 개정안에 의해 회장과 상임총무가 1년 더 활동하게 됐다.

“한 번 왔다가는 삶이라면, 멋지게 하나님 일하고 가야죠”



올네이션스교회 사무장, 워싱턴교협 평신도 부회장, CBMC(기독실업인협회) 동부연합회 회장으로서 바쁘게 섬기고 있는 박상근 변호사를 만나 그의 신앙 간증과 앞으로의 비전 및 계획을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서울대학교 법대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후 교수의 꿈을 품고 오르게 된 미국 유학. 81년부터 조지워싱턴 법대에서 석사과정을 밟았다. 한국으로 짐을 싸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할 정도로 힘들었지만, 결국에 그를 붙들어 준 것은 말씀이었다.

“막연히 크리스천으로서 선하게 살아가고 생각하고 있었던 제게 '사명'이라는 단어는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크신 구원의 역사와 계획 속에서 부여된 저 한 사람의 특별한 사명은 바로 제 삶의 목표이자 저의 존재 이유가 되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워싱턴교협 평신도 부회장 박상근 장로

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장충동 엠베세터 호텔 뒤에 위치한 신광교회에서 주최한 수양회를 다녀온 뒤로 교회에 열심히 다니게 되었다. 교회만 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다. 주일에 새벽 첫차를 타고 나가 제일 먼저 교회에 도착하곤 했던 그는 새벽예배부터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렸다. 그러던 중 아버지께서 앓기 시작하셨다.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새벽예, 한밤에도,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끝내 아버지는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을 부양하기 위해 생활 전선으로 뛰어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컨비니언스 스토어 캐셔, 택시운전, 배달 등 닥치는 대로 일감을 구해 일했다. 이후 장인어른의 도움으로 다시 학교로 돌아가 변호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기까지의 경험은 그에게 한인들을 돕는 변호사로서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 1년여 남짓한 기간 동안 DC, VA, MD 변호사 자격증을 따다.

그 때부터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게 되었고, 일을 하면서도 크리스천 변호사로서 어떻게 손님을 대해야 할 지 고민하게 되었다. 일의 현장이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선교 현장이 되었다. 현재 맡고 있는 워싱턴 교협 평신도 부회장직이나 CBMC 활동도 그의 일환으로 하게 된 것이다. “교회들을 연합하게 하고 작은 교회를 살리는 교협 활동을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흥원기 목사님께서 조언해 주셔서 교협 부회장을 맡게 되었는데, 이번 한 회기 동안 교협 목사님들을 잘 섬기며 사업들이 잘 진행되도록 돕고 싶습니다. 또한 CBMC 모임도 잘 섬겨서 훌륭한 크리스천 비즈니스인들을 키우고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교회로서 사명 감당하길”

최근 워싱턴제일장로교회 제5대 담임 목사로 부임한 이은섭 목사의 위임예배가 11월 28일(주일) 오후 5시 워싱턴제일장로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위임 감사예배에서 이병구 목사(2대 담임) 이 병구 목사는 요한복음 13장 34-35절을 인용,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다”며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비유했듯이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그러해야 한다.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들이

맞히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것”을 축원했다. 이은섭 목사는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사로 아프리카 차드 마와 부족을 섬겼으며, 2005년부터는 워싱턴중앙장로교회 부목사로 사역했다. 이은섭 목사는 “워싱턴제일장로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 예수의 제자로 훈련하는 교회, 성령안에서 양육하는 교회,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이 4대 비전을 갖고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기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목사는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사로 섬긴 바 있다. <조요한 기자>

▶ 교수의 꿈을 품고 오른 미국 유학길, 변호사가 되어 한인들을 섬기기 시작

▶ 흥원기 목사를 만나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다

▶ 유학길, 변호사가 되어 한인들을 섬기기 시작

▶ 흥원기 목사를 만나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다

Advertisement for Cybertek Computer with text: 컴퓨터 무료 견적, 수리후 3개월 안에 문제 생기면 무료 서비스! PC & MAC on Sale! (Compare Price) - 한/영 키보드 \$1 세일 (12월 31일 까지) - Ko/En Keyboard \$1 SALE! (sale ends Dec. 31) 컴퓨터 교육! 인터넷, 오피스, 사진반] 월수금토 / 오전10시-12시 T. 714-590-9504 아리랑마켓 몰 한국일보 2층 (9562 Garden Grove Blvd #Q, Garden Grove, CA92844)

Large advertisement for '자동차! 도네이션' (Car Donation) with text: 남가주 지역 목회자, 선교사, 신학생을 위한 차량이 필요합니다. - 임상철 목사 첫번째 도네이션 자동차 - 후원자: 임상철 목사(남가주리디머교회 부교역자) 수혜자: 문형미 전도사(나성순복음교회) 주관: LA교역자협의회, 기독일보 후원: NARA AUTO 바디, LA 정비 연락처: 기독일보 213-739-0403, 213-718-1512



◆ 산호세성결교회, 낮아짐 통해 아름다운 연합 이뤄

# 한미교회간 연합모델, 섬김통해 가능하다

한국교회가 미국교회를 함께 쓰는 경우에 같은 예배당을 쓰지만, 일반적으로 마을까지 가까워지지는 쉽지 않다. 어떤 경우 집주인(렌드로드)과 세입자(테넌트)의 관계로 그치기도 하며, 이보다 더 안좋은 관계가 되기도 한다. 이런 면에서 한국교회가 미국교회예배당을 쓰는 입장에서 어떻게 낮아져서 섬길 수 있는지 바람직한 복음적인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교회가 있다. 서로 다른 교단배경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7년간 계속 미국교회, 한국교회간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산호세성결교회(윤상희 목사)를 찾아갔다.

### 7년간 지속된 한미연합 예배 풍경..

산호세 성결교회는 Valley Church of Nazarene 미국교회와 두달에 한번꼴로 매 절기마다 한미연합예배를 드려왔다. 21일 드린 추수감사 한미연합예배는 한국교회 성도와 미국교회 성도간에 마치 한가족같은 친밀감이 있었다.

예배 전 경배와 찬양, 연합성가대 등 모든 순서를 미국교회와 한국교회가 함께 했다.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것처럼 한국교회, 미국교회간 연합찬양대를 구성해 불렀다. 설교시간에는 윤상희 목사가 설교하고 옆에 프로젝터로 영어로 된 설교본문이 나왔다.

예배 후에 한국교회, 미국교회에서 각각 준비한 음식들이 나왔다. 식사시간에 다양하게 준비된 음식을 알아서 가져가 자유롭게 서로 얘기하며 식사시간을 가졌다. 산호세성결교회는 미국교회와 절기마다 함께 예배를 드려왔다. 이번 추수감사예배는 한국 목회자가 설교했고, 다음 크리스마스에는 미국목회자가 설교하게 된다. 미국 목회자가 영어로 설교하는 경우 한국어로 번역된 설교본문이 프로젝터를 통해 보여진다.

### 산호세성결교회.. 그동안

### 어떻게 섬겨왔나

산호세성결교회는 미국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자신해서 우리가 필요했던 낡은 지붕을 고치기 시작했다. 미국교인들도 이에 보답하기 위해 육체적인 노동도 함께 해줬다.

이후, 카펫 수선 등 교회 구석구석 잔손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리모델링했다. 교체가 필요한 오래된 오디오와 비디오 시스템도 새로운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했다.

이성욱 장로는 "미국교회가 남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 집이니 까'하는 마음으로 주인처럼 섬겼다"며 "교회 간에 이렇게 친밀해지기까지 한두 번 만나서 되는 게 아니다. 한 형제처럼 생각하고 많은 것을 양보해왔다"고 밝혔다.

천세영 장로는 "계산적이지 않고 헌신적으로 하나.. 가까워지는 것 같다"며 "이 교회에서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오히려 주인처럼 느껴진다. 미국교회 목사님이 예정에 없던 행사가 생기면 우리한테 해도 되는지 물어올 정도다(웃음)"라고 말했다.

산호세성결교회가 이 교회와 예배당을 함께 쓰기 전에 간절한 기도제목이 있었다.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예배당을 사용할 때는 총회를 하면서도 시간초과 하나

까 사용료를 더 내라는 요구를 받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인들이 금식기도하면서 좋은 교회를 찾기 시작했다.

지금의 교회는 그런 기도의 결과라고 고백하고 있다. 처음 찾은 교회는 아쉽게도 잘 안돼서 실망하기도 했지만, 그 후에 찾아온 두 번째 교회인 지금의 미국교회는 더 좋은 조건을 가진 교회였다.

김대위 형제(산호세성결교회)는 "이런 기회가 아니면 서로 만날 기회도 없고, 자주 예배드리고 식사하면서 어색함도 줄어드는 것 같다. 연합예배를 같이 드리니가 얼굴도 익히게 된다. 음식도 각자 가져오면서 많이 친해진 다"고 말했다.

윤대현 집사(산호세성결교회)는 "미국교회와 예배당을 같이 쓰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훨씬 많이 써서 주인이 우리가 된 것 같다. 한국교회는 수요일 목요일, 유스모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기도, 주일학교, EM 등 계속 모임이 진행되는데 미국교회는 보통 주일에 두 번 정도 모인다"고 말했다.

### 연합예배 이후.. 미국 교회 반응은 어떤가

Wayne E. Evans 담임목사의

사모 Helen Evans는 산호세성결교회 찬양단과 함께 쉬어서 강단에서 예배에 앞서 준비찬양을 불렀다. 그녀는 "한국교회와 미국교회가 함께 드리는 연합예배는 너무 놀랍다. 우리는 다른 교단,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찬양 드리고 있다"며 감격하며 말했다. 이성욱 장로는 "미국교회성도들이 연합예배가 너무 은혜롭다고 더 자주 했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 전교인 예배, 알마덴 한국학교 운영하는 산호세 성결교회

산호세성결교회는 실리온밸리 남쪽 사우스베이지역에서 당시 전무했던 한국학교를 3년 전에 처음으로 시작했다. 알마덴 한국학교(www.almadensks.org)를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시작했다. 열심히 일한 덕분에 현재 많이 알려지면서 정작됐다. 현재 산호세성결교회 나와서 복음을 영접하고 변화된 일꾼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한국학교도 열심히 섬기고 있다.

이외에 산호세성결교회는 EM, Youth, KM 다 같이 전 가족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에 드린다. 이 예배에서 어린아이들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함께 축복기도해주면서 어린이들에게도 많은 신앙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길민화 교육목사가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배드리고 있다

(임형진 기자)

## 북가주 교계 지역 대표, '함께 기도해야 할 때'

23일(한국시간)북한의 연평도 폭격으로 인해 군인 2명이 사망, 군인과 민간인 포함 15명이 부상하는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북가주지역 교계 대표들은 안타까움과 우려를 나타냈다.

김근제 목사(산호세 교회협의회 회장)는 "이럴 때일수록 세계가 단합해서 이번 북한의 공격에 대해 강하게

국론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 더 우습게 보였던 것이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사소한 내용으로 의견충돌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그런 것으로 따질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광선 목사(샌프란시스코 교회연합회 회장)는 "갑자기

### 북한 연평도 폭격 "안타깝다, 북한에서 포를 쏘다

는 뉴스를 듣게 됐다. 이럴 때 교회가 함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게 중요하다. 일단 샌프란시스코 각 교회에 연합해서 함께 기도할 시간을 갖자고 연락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동진 목사(이스트베이 교회협의회 회장)는 이번 북한의 폭격에 대해 "왜 북한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이는 것인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는 뉴스를 듣게 됐다. 이럴 때 교회가 함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게 중요하다. 일단 샌프란시스코 각 교회에 연합해서 함께 기도할 시간을 갖자고 연락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동진 목사(이스트베이 교회협의회 회장)는 이번 북한의 폭격에 대해 "왜 북한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이는 것인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임형진 기자)



## 상향중앙장로교회 장학재단, 장학금 수여

### 10년째 매년 장학생 선발, 총 26명에게 장학금 전달

상향중앙장로교회(권혁천 목사) 장학재단은 21일 추수감사절예배에서 총 26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상향중앙장로교회는 사람을 키운다는 교회 방침이

래 매년 장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약 10년 동안 지급해왔다. 장학생 선발은 교회 내 학생 장학생, 신학교 장학생, 한인커뮤니티 봉사 학생, Daily City Westmore High School 장학생으로 나누어져 있다. Daily City Westmore High School 장학생의 경우, 수업성적이 우수한 대학진출 학생이나 특

수반 졸업자로 대학진학을 하는 학생에게 수여 하는 장학금으로 5년째 계속해서 장학생을 선발, 지역사회에서 반가운 친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인사회 커뮤니티 장학생은 한인사회에 봉사하며 공부하는 학생을 위주로 선발하고 있으며 선발 기준에 관한 자료 등은 교회 웹사이트 KCPC.US

를 통해서 매년 업데이트 되는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다.

상향중앙장로교회는 "2010년 장학금 총액은 2009년 2만3천500불과 동일 하며2008년에 비해서 3천불이 증가됐다. 장학금 전액은 중앙교회성도들의 성금과 장학바자회 등을 통하여 얻어지는 수익으로 매년 모금되고 있다. 내년에도 장학사업이 발전하도록 기도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임형진 기자)



상향중앙장로교회(권혁천 목사) 장학재단은 21일 추수감사절예배에서 총 26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 내 부모 처럼 마음을 드리는 봉사자 모집

장애 우 사랑교회에서 양로병원 봉사를 10년동안 하다보니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치매에서 벗어나고, 매일 찬송가를 암송하시므로 할 일이 있다는 소망을드리기 위한 찬양대회를 개최하게 되었기에 이 대회를 빛내게 하실 심사위원들(5명)과 봉사자 분들을 (15명)을 초청하오니, 연말연시의 바쁘신 시간들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찬양대회 장소와 시간

- 그랜드 팍 양로병원 친교실 : 2010년12월17일 오전 9시30분~11시  
- 2312 West 8th, Street, LA., CA 90057-3955
- 중앙양로병원 친교실 : 2010년12월18일 오전10시~11시30분  
-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대회는 찬송가 204장을 심사곡으로 하여 상금도 주어집니다. 1등 1명에게는 상금 100불, 2등 2명에게 각각 50불, 3등 3명에게 각각 30불, 그리고 찬송가 모두를 다 암송한 분들에게는 10불씩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연락처 : 213-705-0404 / Fax: 213-351-0955  
메 일 : P.O.Box742017 Los Angeles, CA 90004

##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절세의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을  
세금고민으로 부터 해방시켜 드립니다.

1. 세금보고 및 세무상담 유학생을 위한 세금보고
2. 국제/국내 비즈니스 컨설팅 투자이민 E-2
3. 세무감사 대행서비스
4. 온라인 상담 ( www.chungycpa.com )
5. 공증

상담환영 : T (213)387-2004

주소 : 3130 Wilshire Bl. #405 이정운공인회계사&공증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 교회 및 선교회 리스트

**갈릴리선교회**  
 담임: 한천영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youth 오전 11:00 토요일함세복 오전 6:20  
 2212 S. Western Av., LA., CA 90018  
 T. (323) 735-6412 / www.gmcchurhc.com

**감사한인교회**  
 담임: 김영길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애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장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228-9540 / F. (714) 521-4636

**구세군나성교회**  
 담임: 김옥균 사관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20  
 수요일예배 & 성경공부 오후 6:00  
 93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0-0714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진유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저녁 7:30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나성열린문교회**  
 담임: 박현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www.laopendoor.org

**나성한인감리교회**  
 담임: 남강식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Youth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20  
 3부 EM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4부 청년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433 S. Normandie Ave. LA, CA 90020  
 T. (213) 365-6191 / F. (213) 365-6291

**남가주광염교회**  
 담임: 정우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성경공부: (화)오후 7:30, 1부: 오전 5:30 2부: 오전 6:30  
 (수) 오전 10:30, (토) 오전 6:30  
 4009 Wilshire Bl. #100-B, LA, CA 90010  
 T. (213) 598-0191

**남가주동신교회**  
 담임: 손병렬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 김요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 (213) 215-8523 / www.scrdm.org

**남가주명성교회**  
 담임: 정해진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찬양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종교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11 S. Mariposa Ave., LA, CA 90004  
 T. (213) 383-9182, F. (213) 251-9182

**남가주빛내리교회**  
 담임: 박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영어(EM)예배: 오후 2:30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뉴월드임마누엘교회**  
 담임: 김승일 목사, Mary Kim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3부 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4055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993-4842(교회), (909) 993-2157(상담)

**대양장로교회**  
 담임: 류달열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1325 12th .Ave LA, CA90019  
 T. (323) 731-9819 / C. (213) 440-0125

**대흥장로교회**  
 담임: 권영국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영어) 오전 9:45 중·고 주일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저부 주일예배 오전 11:0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www.dkpc.org

**들로스교회**  
 담임: 서보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영어(EM)예배: 오전 10:30(목)  
 수요일예배 오후 8:00 중보기도회 오전 10:30(목)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www.douloschurch.com

**드림교회**  
 담임: 이성현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미주성산교회**  
 담임: 방동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오전 10:3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 오전 5:30  
 3부예배 오후 1:00  
 1111 W. Sunset Blvd. LA CA90012  
 T. (213)-975-1111 / F. (213) 975-1357

**미주양곡교회**  
 담임: 지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매일) 오전 5:3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519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F. (213) 380-9378

**베델한인교회**  
 담임: 손인식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예배)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금 새벽 5:30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삼성장로교회**  
 담임: 신원규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20  
 2부예배 오전 9:40 4부예배 오후 12:50  
 5600 Carboncanyon Rd, Brea, CA 92823  
 T. (714) 524-2029 / F. (714) 524-8844

**소중한사람들**  
 대표: 김수철 목사  
 찬양-나눔예배 매일 오전 7:00(더운터문 4기 Crocker St.)  
 1부가리예배 오전 7:00  
 2부센터예배 오전 9:30  
 1856 W 11th Place, LA,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새생명오아시스교회**  
 담임: 김일형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EM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00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2939

**새생명장로교회**  
 담임: 정철 목사  
 1부EM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화-주) 오전 6:00  
 2부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23662 Birtcher Dr, Lake Forest, CA 92630  
 T. (949) 458-9191 / F. (949) 459-9158

**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 강신권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793-2297, 2298(Fax)

**세계소망교회**  
 담임: 오세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찬양 오후 1:30 새벽예배 오전 5:30  
 824 W.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745-9191

**쉽있는교회**  
 담임: 이철기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토) 오전 6:00  
 901 W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2  
 T. (714) 293-1257

**시온성증양교회**  
 담임: 박상규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995-2868 / F. (714) 995-0169

**아름다운교회**  
 담임: 고승희 목사  
 1부예배 오전 10:00 3부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안디옥장로교회**  
 담임: 지윤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영어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8:00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T. (818) 249-2871 / F. (818) 249-051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 한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4부예배 오후 1:3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45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영광의빛복음교회**  
 담임: 우대권 목사  
 주일예배 오후 1:30분 목요일예배 오후 7:30분  
 주일학교 오후 1:30분  
 1200 W. Alvarez Ave. Orange CA 92868  
 T. (213) 291-5901 / (714) 833-2568

**영생장로교회**  
 담임: 김해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2:3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인랜드교회**  
 담임: 최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월-토) 오전 5:30  
 110 N.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임마누엘헬로십교회**  
 담임: 안창기 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 청년부 오후 1:15  
 종교대부 오후 1:15 장년주일학교 오후 1:15  
 14300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504  
 T. (562) 944-8082

**에바다선교회**  
 담임: 이준호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청년예배 오후 7:00  
 (월-금) (1,3,5째주 토요일)  
 2221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2671

**예수마을교회**  
 담임: 정인호 목사  
 1부예배 오전 9:3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종교대부 오전 11:00  
 금요중보기도 오후 1:00  
 615 shatto place, LA, CA90005  
 T. (213) 249-9191 / F. (213) 739-0515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 엄규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2부EM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634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2-5658

**주님세운교회**  
 담임: 박성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20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 신승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4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님찬양교회**  
 담임: 장준근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2511 3rd Street, Los Angeles, CA 90057  
 T. (310) 940-1646 / F. (714) 397-2875

**청운교회**  
 담임: 이명수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종교대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토)  
 4465 Melrose Ave., LA, CA 90029  
 T. (323) 667-9920

**축복교회**  
 담임: 김인경 목사  
 1부예배 오전 9:30(영어) 청소년예배 (토)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리더십 트레이닝  
 Cell Church (금) 오후 8:00 (토) 오전 10:30  
 2080 La Puente Rd., Walnut, CA 91789  
 T. (909) 598-7731 / F. (909) 594-5955

**충현선교회**  
 담임: 민중기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4565 W. Colorado Blvd., LA, CA 90039  
 T. (818) 549-9191

**코너스톤교회**  
 담임: 이종용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파사데나장로교회**  
 담임: 성현경 목사  
 영어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6:30  
 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토) 오전 6:00  
 한국어 오전 10시(월로우음) 수요일예배 오후 7:45  
 정오 12:30(분방) 금요찬양 오후 8:00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함께하는교회**  
 담임: 최성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토) 오전 6:00  
 14515 Valley View Ave, Suite T. Santa Fe Springs, CA 90670  
 T. (714) 236-0256

**SL 임마누엘선교회**  
 담임: 백지영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오후 3:00  
 찬양예배(화-토) 오후 7:00  
 SOLOMON UNIVERSITY 총장: 백지영 박사(Ph.D.)  
 3921 Wilshire Blvd, #404-408 LA, CA 90010  
 T. (213) 381-7755 / F. (213) 380-7755



# 이광선 목사, 한기총 차기 대표회장 선거 불출마 선언



이광선 대표회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류재광 기자

▶ “준비 끝났지만, 합동측 배려해 내려놓기로”

한기총 현 대표회장인 이광선 목사가 차기 대표회장 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한기총 차기 대표회장 선거는 합동측 후보들인 김지연 목사와 김동권 목사의 2파전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실명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김동권 목사를 지지하는 듯한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 대표회장은 30일 오후 4시 서울 연지동 한기총 대표회장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1년간 사역을 회고한 뒤, “못 다한 정관 개정, 운영기금 확보, 동성애법 추진 결사저지 등 시급

히 해야 할 일들을 이루고자 힘겨운 대표회장직을 계속해서라도 반드시 마무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회장은 그러나 “한기총은 연합과 일치 정신으로 화합을 이루는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이라며 “한기총에 속한 교단·단체에는 한국 기독교를 이끌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다. 금년에는 예상 합동 중 경총회장 중 진실·정령·비전·애국심을 지닌 분이 대표회장 후보로 출마를 선언했다. 이러한 총성되고 겸손한 주의 종들이 일을 잘 하도록 적극 돕고자 오래 기도한 후 재출마하지 않기로 결심

했다”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이는 한기총의 명예를 드높이고, 법 정신을 바로 세워 공명 선거를 돕고자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출마 여부를 놓고 오래 기도했고, 어제와 오늘 교단에서 만장일치로 추천해 왔고 회비도 마련되는 등 모든 준비가 마무리됐다”고 밝힌 이 대표회장은 “그러나 고심 끝에 최근 몇 년간 대표회장을 배출하지 못한 합동 교단을 배려해 이를 내려놓기로 했다”고 이유를 전했다.

이 대표회장은 “이번에 두 분이 출마하셨는데, 한 분은 진실·정령·비전·애국심을 지닌 분이

시지만 다른 분은 두 번이나 연임하시고 또 출마하셨다”며 “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폐단이고,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명예회장들이 한기총의 명예를 귀하게 여긴다면 좀 더 진중해야 한다”며 “(대표회장 연임 후 재출마는) 현 정관의 법 정신과 윤리적 질서에 위배되는 일로, 그 분이 용퇴해 주신다면 정말 좋겠고 한국교회에 큰 모범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재광 기자〉

## “한반도 주변 정세와 대북정책의 방향”

연평도 사건으로 남북한 긴장관계가 더욱 심화된 가운데 예정 통합 남북한교회 통일위원회와 장신대 남북한평화신학연구소가 29일(월) 장신대 세계교회협력센터에서 “한반도 주변 정세와 대북정책의 방향”이란 주제로 ‘북한교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박철연 전 정부정관(한반도복지통일연구소 이사장, 건국대 석좌교수, 변호사 법학박사, 전 대통령 정책보좌관)이 주제강연을 전했다. 박 전

오늘의 지도자나 미래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덕목은 ‘능력’ ‘도덕성’ ‘조정통합력’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지도자들이 능력과 도덕성, 조정통합력의 덕목과 함께 모든 국민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겸허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철연 전 장관의 발표에 이어 노영상 교수(장신대 기독교윤리)와 김근식 교수(경남대 정치학)가 각각 “동북아 평화를 위한 교

### 장신대 남북한평화신학연구소 북한교회 세미나 개최

장관은 현 한반도가 북핵 문제가 장기미제로 있는 가운데 천안함 침몰사건 등으로 남북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안보위기의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여기에 미국발 금융대란으로 말미암은 한국경제의 위기와 국민 분열의 심화가 한국이 당면한 3중고라고 지적했다.

박철연 전 장관은 이러한 비상시국에 거국내각을 구성해서 3중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대적 과제인 발전과 복지, 통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통합이 선결과제이며, 여야와 노사, 사회단체 및 언론 등 모두가 위기의식에 공감하고 범국가적이고 범국민적인 극복의지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특히 “각계 지도층의 마음가짐과 역할은 작게는 바로 몸담고 있는 집단의 성패를 좌우하고, 크게는 우리 사회의 융성과 직결될 수 있다”고 말하고, “모든 분야에 걸쳐서

회의 역할” “남북관계: 회고, 평가, 전망”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노영상 교수는 발제를 통해 “동북아 미래의 발전은 이 지역의 국가들이 얼마나 효율적인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환경공동체, 안보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이러한 시대에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민족주의적인 편협함에서 벗어나 이 지역의 국가들이 서로 협력한다면 동북아의 미래는 더 밝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세미나에 앞서 열린 개최예배에서는 예정통합 부총회장 박위근 목사가 “동족을 위한 열심”(렘 21:10-14)이란 주제로 설교를 전했다며, 박광식 장로(남북한교회통일위원장)가 개회사를 했다.

또 폐회예배에서는 장영일 총장(장신대)이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마 28:16-20)란 주제로 설교를 전했다.

〈기사제공=선교신문〉

## 나용화 박사, 개신대학원대학교 총장 취임

### 나용화 박사, 개신대학원대학교 총장 취임

개신대학원대학교 총장 이취임식이 11월 30일 열렸다. 이날 개신대 초대 총장으로 14년 동안 학교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손석태 박사가 이임했고, 조직신학자로 후진 양성과 학문 연구에 독보적 업적을 쌓아온 나용화 박사가 취임했다.

1부 예배는 사회교육원장 서재주 교수의 사회로 개혁총회 부총회장 장세일 목사가 기도하고 총회장 조경삼 목사가 ‘난세의 두 지도자’(왕하 2:1-14)라는 주제로 설교, 개신대 이사장 조경대 목사가 축도했다.

2부 이취임식에서는 교학처장 김구원 교수의 사회로 조경대 목사의 환영사, 손석태 박사의 이임사, 총장 임명장 수여, 나용화 박사의 취임사, 교기 및 교패 전달, 박경민 교수의 축가, 한국복

음주의신학대학협의회회장 임영수 총장과 개신대 총동문회장 박만진 목사의 축사, 개혁증경총회장 이봉기 목사와 전 한신대학교 이사장 배아섭 목사의 격려사, 공로패 및 명예교수 임명장 수여, 일반 복거자씨 심기 운동선포 등이 있었다.

조경대 목사는 손 전 총장에 대해 “오랜 기간 총장으로 있으면서 학교를 훌륭하게 발전시키고 후진들도 잘 양성했다. 더 함께하고 싶는데 이렇게 이임하게 되어 아쉽다”고 치하하고, 새 총장에 대해서는 “뛰어난 조직신학자로서 교수로서 맡은 바 일을 잘해왔기에 총장직도 잘 수행하리라 믿는다”고 기대를 내비쳤다.

손석태 이임 총장은 “14년 동안이나 총장으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이사 여러분들, 교수들과 학생들이 모두 도와주었기에 가능했다”며 감사를 표현한 뒤, “나용화 박사님이 총장



이임 총장 손석태 박사가 신임 총장 나용화 박사에게 교기를 전달하고 있다. ©류재광 기자

이 되어서 본인보다 더욱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본인은 총장직에서는 물러나지만, 계속 교수로 있으면서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일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학문 연구와 교육에 더욱 주력할 뜻을 밝혔다.

나용화 신임 총장은 “개신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피눈물 섞인 간구와 힘겨운 재정적 부담을 해오신 조경대 이사장님과 이사님들, 중앙종교회 담임 조성환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또한 지난 20년을 수일같이 구약신학 교수와 개혁신학연구원 원장 및 개신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으로 수고하여 우리 대

학교의 설립과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우신 전임 총장 손석태 박사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 목사는 ▲일만 복거자씨 심기 운동 ▲복음주의 개혁신학 발전 ▲개혁교단의 역사와 정체성 재정립 ▲개혁교단의 분열의 악순환 끊기 등을 포부로 밝혔다.

나용화 총장은 전남대 법과 대학(B.A), 총신대 신학대학원(M.Div. Equi.), 미국 카버난트 신학대학원(Th.M. cum laude), 미국 콘폴디아 신학대학원(Th.D.) 등을 거쳐 1991년부터 지금까지 개신대학원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류재광 기자〉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 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 영화 '용서'의 실제 주인공 타스 사다 목사의 간증

팔레스타인 저격수에서 복음의 전도자로

과거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의 저격수로 수많은 인명을 살상했던 타스 사다(사진) 목사. 그러나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런 그가 영화 '용서'(감독 김종철)와 함께 한국에 왔다. 11월 29(월) 오후 7시 정동제일감리교회에서 열린 모퉁이돌선교회(대표 이삭) 정기기도모임에서는 타스 사다 목사의 간증이 있었다.

1951년 태어난 그는 "왜 우리는 집이 없고 땅이 없을까"를 생각하고 살았다고 한다. 아랍 속담에는 "땅이 없는 자는 명예가 없고, 명예가 없는 자는 죽음보다 못하다"는 속담이 있다. 그는 자신의 현실이 괴로웠고,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지는 전쟁을 바라보면서 67년 전쟁 이후에는 아예 아라파트 밑으로 들어가 게릴라가 된다. 북한에서 왔다는 교

생계를 위해 식당 일을 시작한 그는 열심히 노력한 결과 후에는 식당뿐 아니라 호텔까지 경영하고 유명대학의 호텔 관련 석사학위까지 받는 성공한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거의 20년을 지낸 그는 어느 날 첫 직장이었던 식당에서 알게 되어 오랜 친구로 지내던 노신사의 증거로 빛과 대화하는 신기한 체험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게 됐다고 한다.

그는 어릴 적 필리핀에서 온 기독교인 유모가 자신을 위해 기도

했다고 했다. 타스 사다 목사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다. 그 아들은 그가 예수를 영접하기 3개월 전 먼저 믿기 시작했다.

그의 아들은 당시 무슬림 아버지로 말미암아 담임목사와 상담했는데, 그의 담임목사는 "가서 아버지를 더 사랑하라"고 말하고 함께 3개월 동안을 하루 같이 기도했다고 한다. 이제 유대인과 같이 원수였던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타스 사다 목사, 그는 "우리 민족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

또 "(그가 사역하고 있는) 여기고 지역으로 돌아가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했다.

한편 타스 사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 두셨고,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살기를 바라신다"고 말하고, 함께 사역할 이들을 찾고 있다



타스 사다 목사

관은 그런 그가 저격수의 소질이 있음을 알고 살인 기술을 가르쳤다.

타스 사다 목사는 17살 때 가출해 3년 반을 게릴라로 살았다. 그러나 결국 그의 아버지가 그를 찾아냈고, 돌아가 학교생활을 하게 되지만 이번에는 1973년 말 교사를 총으로 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퇴학을 당하게 된다. 이 일로 그는 1974년 미국 길에 오르고, 국제경영학을 공부하면서 미국에서 살기로 결심한 후에는 미국 여성과 결혼까지 하게 된다. 타스 사다 목사는 당시 자신을 이민자로 놀리지 않는 미국사람들이 너무 좋았다고 했다.

해 줬던 것이 예수를 영접하게 됐던 밑거름이 됐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이어 타스 사다 목사는 "한국이 어려운 시기를 가고 있다"고 말하고, "북한으로 말미암아 고통 받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총으로 싸울 것인가, 기도로 싸울 것인가?"라고 도전했다. 그는 "믿는 이들이 북한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승리를 볼 것"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나라가 하나되는 것을 원하신다"고 했다. 또 "우리는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고, "우리에게 그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

고 전했다.

현재 그는 미국과 스위스, 프랑스 등에서 온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유치원과 유아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어린아이들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PLO에 있을 때 무뎠던 것을 많이 했는데, 10대 청소년들에게 전투기술을 가르쳤던 일"이라고 고백하고, "이제 회심한 후에는 똑같은 나이 청소년들을 위해 문화센터를 열었다"고 했다. 그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용서'는 www.영화용서.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제공=선교신문)

'변화된' 이요나 목사의 상담치유 세미나 강의

동성애를 포함한 '성 중독'을 어떻게 상담할 것인지 논의하는 제1차 성경적 상담 중독치유 세미나가 29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서울 신촌 아름다운교회(담임 이규 목사)에서 진행됐다.

첫날 일정은 이규 목사가 설교하고 장현일 교수(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가 격려사한 개회예배에 이어 '정통교회와 성윤리'를 이승구 교수(합동신대)가, '성과 결

는 성경에서 모두 죄라고 이야기한다"며 "무엇보다 동성애는 영적인 저주가 아니고, 이들도 교회에서 단지 들뜬 기분을 경험하는 '감정 체험'이 아닌, 진정한 '성령 체험'을 통해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요나 목사에 따르면 성 중독(Sexual Edict)은 성적 모험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정신적 불안증 또는 정신병적 증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

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구원'과 함께 마음과 습관의 변화를 끊임없이 경험하는 '성화'의 과정을 소개하고, 삶의 일과표를 완전히 바꿔 동성애의 생각이나 말, 행동 등 '성적인 우상' 전체를 버리고 그 빈 자리를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채워야 한다.

또 영적 투쟁은 믿음의 결과와 비례하므로, 동성애를 합리화하는 모든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단호하게 돌아서고 마음과 생각 속의 모든 잘못된 사고들을 성경의 진리로 바꾸며,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동성

"동성애, 성령으로 삶 전체 철저히 거듭나야 변화"

혼관계'를 윤성주 박사(총신대)가, '성중독 상담원리 I'를 김주원 대표(한국성경적 상담자협회)가, '성중독 상담원리 II'를 이요나 목사(홀리라이프 대표)가 각각 강의했다.

동성애자 출신으로 치유 사역에 앞장서고 있는 이요나 목사는 이튿날인 30일에도 '동성애 치유상담원리'를 세 차례에 걸쳐 강의하는 등 사실상 이번 세미나를 주도하고 있다. 이 목사는 첫째날 저녁 집회에서 동성애자 시절 이야기를 풀어놓으며 간증을 전하기도 했다. 이외에 30일에는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본부)가 '동성애 문제와 정치학'을 강연한다.

이날 이요나 목사는 동성애를 비롯한 성 중독에 대해 "동성애나 성 문제 자체에만 집중해서는 절대 치유될 수 없고, 생활 전반에 대한 치료가 병행돼야 한다"며 "하지만 동성애자들의 정치적 압력으로 동성애를 질병이라는 '치료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은 점이 문제"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성 중독자들에 대한 상담 방법에 대해 "자위행위가 죄나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음란과 음행, 음욕과 동성애

했지만 개인적으로 심한 고독감을 느끼는 상태에서 성적 모험을 통해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 애쓰는 증세다. 시간·장소와 관계없이 성적 집착을 보이며, 자신의 삶의 어려움을 대처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성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포르노나 자위행위를 스트레스 등 삶의 어려움과 싸우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면 성 중독자라 할 수 있다. 성 중독자들의 특징은 △고독·권태·우울함·지루함에서 벗어나려 하기 보다 자극적인 공상이나 행동을 추구하고 △신경화학적 반응에 의해 내성이 생긴 뇌에서는 도파민(항우울제) 수준을 더 높여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며 △알콜이나 약물, 인터넷 중독의 역기능이 함께 나타나고 △과잉 행동장애나 주의력 결핍 등이 동반된다. 이들은 통제 불능에 가까울 정도로 성관계를 계속하려 하고, 강박적인 자위행위나 지나친 동성애 행동, 연쇄 강간, 지속적인 근친강간, 부부간 지나친 성행위 요구, 인터넷을 통한 강박적·중독적 성행위, 의식적인 성행위 등을 보인다.

이들에 대한 치유는 마음

에 교제가 있을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이전에는 동성애 원인과 관계없이 자신의 성적 실재와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동성애는 하나님이 금하신 범죄 중의 하나임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한다. 또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음을 깨닫고, 가족과 믿음의 공동체에도 자신의 고통과 상황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정신적·신체적 극복에 문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딸이라면 어머니가 목욕탕이나 사우나에 데려가서 다 벗고 깊은 대화를 나눠야 한다"며 "동성애나 포르노 사이트에 들어가 지 않는지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신학생과 목회자들이 사역지에서 사실을 숨긴 채 성 중독 상담을 하러 오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저는 사역을 그만두거나 잠시 쉬면서 치유를 받고 나서 사역하려고 이야기한다"며 "어떤 성도가 알콜 중독, 도박 중독이 있는 목회자와 함께하려 하겠느냐"고 잘라 말했다.

(이대용 기자)

- ✓ Smog Check
- ✓ Brake Service
- ✓ Tune-Ups
- ✓ Computer Diagnostic

- ✓ 전기계통
- ✓ 30/60/90K Service
- ✓ A/C Service

# L.A. AUTO 정비

24hr **213.247.6657**

※ 목회자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엘에이오토정비 32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90006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Tel. 323-735-3180**

**Fax. 323-730-0112**

Mon - Fri  
A.M 7:00 ~ P.M 7:00

Sat - Sun  
A.M 8:00 ~ P.M 6:00

**SMOG CHECK \$10 off**

**REPAIR \$10 off**



### 신앙논단

##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성령에 의해 결합된 공동체를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예배 공동체라고 합니다. (마태 16:18, 눅 22:29-30)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대답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 안에는 크리스찬과 교인이라는 서로 다른 명칭을 가지고 한교 회안에 모여 있음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공동체의 예배관이 세속화 되어 가는

#### 조주호 목사

리폼스대학교 신학대학원 총장

교회관을 바르게 하여 하나님의 선택 받은 성도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는 신앙심을 더해 주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선포하여 예배목적을 이루도록 하고 교회강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선포하라고 주의 종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강단의 말씀이 전해지는 동안 교회는 주의 은혜와 능력을 얻을 것입니다.

어느 교회 강단에는 성경은 한 구절 읽고 여행담이나 생활담을 말하는 교회 예배도 있고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코미디언 같은 목사님도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현실입니다. 물론 코미디

목사의 설교를 좋아하는 교인들이 있느냐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요. 하나님의 교회의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전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기를 더 성실하게 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목적이 있습니다.

현실의 교회의 일부는 인간이 좋아하는 많은 것들을 교회 안에 도입해서 인간들이 즐거워하는 노래를 부르는 교회도 있고 심지어 예배라는 이름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가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들은 찬송가는 뒷전으로 밀어내고 복음송이라는 명목으로 교회예배를 자신들을 위한 노래하는 광장으로 바꾸어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 보험 칼럼



#### 폴 선 플래너

수호천사 보험의 시니어 전문

메디케어는 1965년에 제정된 사회보장법에 의해 65세 이상의 시니어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CMS(Centers For Medicare Services)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메디칼)는 주정부에서 저소득층 분들에게 병원 및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메디케이드 가입 및 수혜자격에 대한 규정은 각주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합니다. 메디케어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의료비용을 부담해 주며 대부분 처방약 보험이 신청 없이 제공 될 수 있습니다.

#### ◆ 메디케어

파트A(병원보험): 40쿼터 (10

년) 페이롤 텍스보고를 하신 분들이 받으실 수 있으며, 만일 텍스보고 기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매월 일정비용을 지불하시고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파트B(의료보험):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 받으실 수 있

니다. 메디케어 우대플랜 HMO는 CMS(Centers For Medicare & Medicare Services)로부터 승인을 받은 건강보험 회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별도로 Supplemental보험 (보조보험)과 파트D(처방약 보험)를 구입할 필요가 없고 디터터블이 없

방문 간호 서비스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우대플랜 HMO의 가입자격은?)

- 메디케어 수혜자로서 파트A와 파트B가 있는 분은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메디케어 파트A와B, 동시에 메디칼을 소유하신 분

- 메디케어 파트A와B, 처방약 보험 파트D를 소유하신 분

- 메디케어 파트A와B, Supplemental보험(보조보험)을 소유하신 분

- 메디케어 파트A와B, 다른 회사의 HMO를 갖고 계신 분

LA와 O.C County에는 수십 개의 건강보험 회사가 경쟁적으로 각각 다른 혜택의 HMO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MO를 취급하는 건강보험 회사별로 혜택은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맞는 건강 보험회사와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자격을 갖춘 에이전트를 통해 상담하신 후 결정하시면 비용절약은 물론 차별화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가입기간

11월15일~12월 31일

수호천사 보험의 시니어 전문 플래너 폴선 / 2140 W.Olympic Blvd #214 Los Angeles CA 90006 / T.213-503-6897

## ‘시니어 분들을 위한 메디케어 우대 플랜 HMO’

며, 2010년 기준으로 연간 개인 수입 \$85,000.00 부부수입 \$170,000.00 이하인 경우 매월 \$110.50 지불하셔야합니다.

메디케어 파트A와 파트B는 65세가 되시는 생일 달을 기준으로 3개월 전에 소셜 시큐리티 디파트먼트에 가서서 신청하셔야합니다.

이렇게 메디케어 파트A와 파트B를 취득하신 분들은 의료비용의 약 80%혜택을 받으시기 때문에 나머지 20%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별도로 매월 일정 비용을 지불하시고 Supplemental 보험(보조보험) 가입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처방약 구입을 위해서는 2006년 1월 1일부터 별도로 매월 일정 비용을 지불하시고 파트D(처방약보험)를 구입하셔야 합

는 플랜을 운영하는 보험회사도 있습니다.

메디케어 우대플랜 HMO는 주치의의 통해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지만 정기적으로 진료와 상담을 받음으로 큰 병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 할 수 있으며, 의사선생님들이 같은 그룹 내에서 환자에 대한 진료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하며, 특히 시니어들이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진료를 받다보면 약물과 다 복용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HMO를 통해서 이를 예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9년 7월 이후 메디케이드(메디칼)로 받을 수 없게 된 혜택- 치과, 한방침술, 안경, 척추교정지압 외에 헬스클럽회원권, 해외 여행시 응급비용지원, 병원 방문시, 교통편 제공, 가정

### 김한요 칼럼



#### 김한요 목사 세리토스장로교회

아들이 모르는 사이에 훌쩍 커버렸다. 많이 컸다 싶어 키를 재어 보아도 늘 한 치 아래였던 둘째 아들이 어느새 나를 앞질러 버렸다. 정말 눈 깜짝 할 사이에 일어났다. “어? 존귀가 아빠보다 커 보이네.” 저녁을 먹기 위해 식탁에 다가오는 아들보고 아내가 한마디 한다. 나는 그런 이변이 일

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과 뒤로 서서 키를 잰다. 아내가 딱딱한 공책을 가지고 오더니, 아들과 나의 머리를 치며 놀러 본다. 온 식구들이 저녁 먹다말고 누가 더 큰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된다. 잠시 후 아내가 “와- 존귀가 더 크다!” 일

최근 들어 둘째 아들은 점심 때마다 집에 들어와 엄마가 직접 해주는 맛있는 식사를 했었다. 내 아내를 너무 부러 먹는 것 같아서 맘이 찢찢했는데, 그것이 효력이 있었던지, 드디어 내 키를 따라 잡은 것이다. 나도 아들이 나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일

## 추월 당하는 기쁨

마나 크게 소리치던지, 난 귀청이 떨어지는 줄 알았다. 아들이 자기 남편보다 키가 큰 것이 그리 좋았나 보다. 신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은 남편이 하는 야릇한 느낌마저 들었다. 막내딸이 옆에서 한 수 거든다. “그럼, 우리 집에서 존귀 오빠가 제일 커?” “아빠가 2등이네.” 아내는 아들이 대견스러운 듯 저녁식사 하는 아들들을 자꾸 쓰다듬는다.

마나 기쁘든지, 식사 후 따로 아들을 내 방에 데리고 올라가 함께 거울 앞에 서서 “어쭈, 이것 봐라... 존귀 어깨가 아빠 어깨보다 올라갔네?” 하며 쥐어박는 듯 아들을 밀쳤다. 아들도 싫지 않았는지, 아니 내 속 마음을 읽었는지, 넘어지는 척 하면서 기분이 좋아 실실 웃기만 한다.

6년 전 쯤으로 기억된다. 큰 아들이 나랑 농구경기를 일대 일로 한 번 버르다가 붙은 때가 있었

다. 그 전까지만 해도 기를 쓰고 해도 나를 이길 수 없었던 아들이, 그땐 내가 기를 쓰고, 악을 써도 아들을 이길 수 없었다. 나를 처음으로 이긴 아들이 너무 좋아서 펄펄 뛰던 모습을 보면서, 난 그때도 나를 이긴 아들 때문에 기분이 너무 좋아서 아들보다 더

높이 뛰고 싶었다. 이렇게 아버지들은 아들이 자기를 추월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대견스럽나 보다. 암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를 얻어맞고 T-KO 당한 야곱은 그 후 평생 다리를 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패한 야곱에게 “네가 이겼다”고 우기시며 이름도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하셨다. 이해 못할 일이지만 하나님도 아버지이신 것이 분명한 듯 하다.

# 여드름 고민 해결!

[ 첫 상담 무료!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 보장제 실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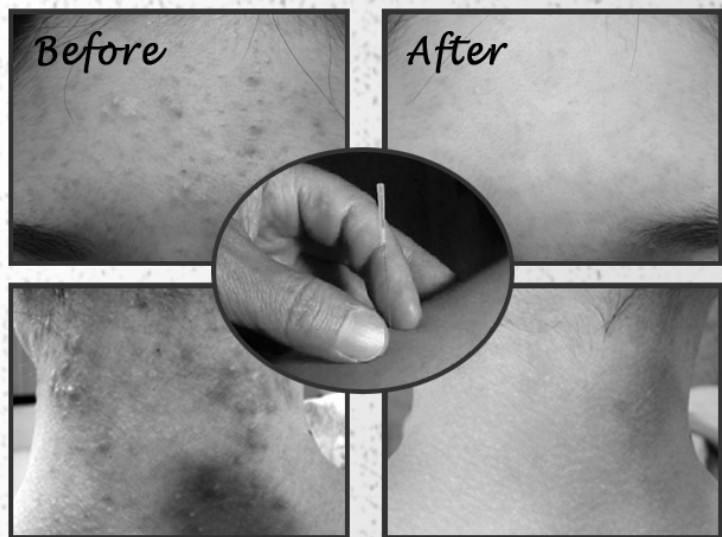
재발하지 않는 근본 치료법  
**침 + 해독 + Becare**

몸 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BeCare요법은 피부 내면 치료를 통해 면역 체계를 작동하게 하여, 비정상세포(여드름)를 정상세포로 바꿔주는 치료법입니다. 그동안 Becare치료를 받으신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여드름 재발없이 깨끗한 피부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 경산한외과병원

원장 류재규 경산 한외과 대학 교수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 Los Angeles, CA 9006 (삼호관광 몰 2층)



T.213-380-0853



### 정우성 칼럼



정우성 목사  
남가주광영교회

## 감사또 감사

감사는 생명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살았다는 증거는 감사 할 때 생명의 감각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말할 때 당신의 표정을 거울에서 보십시오. 짜증스러운 얼굴이나 화난 얼굴은 아닐 것입니다. 감사의 얼굴은 미소 짓는 모습, 부드러운 모습, 겸손한 모습, 감동의 얼굴입니다. 감사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좋은 생

각, 은혜로운 생각 등에서 감사의 물결이 흐르는 것입니다. '사와 한 쪽을 먹어도 감사'라는 말을 생각하면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과일을 재배한 농부에게 감사, 사과를 마켓까지 유통한 분들에게 감사, 마켓에서 파는 분들에게 감사 등 감사를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가 더 풍성해집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2:7)  
“작은 것에 감사하라 큰 것을 얻으리라”  
“부족할 때 감사하라 넘침이 있으리라”  
“고통 중에 감사하라 문제가 풀리리라”  
“있는 것에 감사하라 누리며 살리리라”  
“많을 때에 감사하라 쌓아져 가리리라”  
“생활 속에 감사하라 즐겁게 살리리라”

좋은 울릴 때 까지 종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축복은 감사 할 때까지 축복이 아닙니다. 금년에도 받

은 감사를 몇 가지 적어봅니다. 첫째) 많은 감사 중에 첫번째는 하나님이 저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둘째) 저희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것 감사드리고 양가 부모님이 건강하시고 그 자손들이 신앙 생활 잘한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셋째) 행복한 목사로서 광영교회를 섬기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넷째) 좋은 성도들과 함께 교회가 부흥되고 천국나라를 확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섯째) 한국인으로 태어나 부모님께 신앙을 전수받고 한국민족의 장점을 살려 지구촌을 품고 기도하니 감사드립니다.

여섯째) 성령을 꿈꾸며 모든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전도하니 감사드립니다.

일곱째) 성경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덟째) 기도하는 어머니님 그리

고 아버님, 사랑스러운 아내와 믿음의 자녀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감사가 있지만 지면상 몇 가지만 적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엡5:20

모든 것에 감사한다는 말은 가장 작은 것에도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가장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면, 세상은 온통 그 사람의 것입니다.

201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베푸신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해보십시오.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의 마음입니다. 받은 축복을 인정하고 고백과 행동으로 옮길수록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십니다. 감사는 최고 수준의 신앙 경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를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김지성 칼럼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오랫동안 사람들은 아프리카 최남단을 “폭풍의 기슭”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물결이 흉흉한 바다였습니다. 그러나 19세기 포르투갈의 탐험가 “바스코다가마”가 이곳에 도전하여 성공적으로 그곳을 통과했습

하지만 달랑 들고 로마의 중심부를 향합니다.

그들의 행위는 무모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미친짓이다 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는 일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과감한 모험성은 역사를 뒤바꾸는 결과를 만듭니다. 아브라함의 이주를 통해 믿음의 나라가 건국됩니다. 모세 앞에 철혈군주 바로가 무릎을 꿇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견고한 요새 여러고성이 무너집니다. 다윗의 물맷돌은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바울의 사자후가 로마를 복음화 시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과감한 모험성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모험성을 상식화시키도록 만들

## 그리스도인의 모험정신

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희망봉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바스코다가마가 그곳을 지나고 나니 세계에서 가장 잔잔한 인도양이 있고 아름다운 해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항해하는 배들이 이곳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발걸음이 닿지 않은 곳에 가본다는 것은 큰 용기를 요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에 발자취를 남기는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신념을 만들어 줍니다. 성경은 모험 정신을 가감 없이 드러냅니다. 아브라함은 노년의 나이에 미지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주합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 들고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에게 맞섭니다. 여호수아는 침묵시위로 견고한 요새인 여러고성의 정복을 시도합니다. 다윗은 물맷돌 몇 개를 들고 거장 골리앗에게 도전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메시지를

어 줍니다.

특별한 인생과 평범한 인생의 차이에는 모험성이라는 요소가 자리를 잡습니다. 평범한 인생은 변명의 구실이 많습니니다.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하지만 특별한 인생은 말이 별로 없습니다. 오직 모험성을 기반으로 하는 도전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험성이 배제된 성취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보강해 주신 정착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는 꿈속에서까지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출생한 2세대의 몫이 됩니다.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모험성’입니다. 아무도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한 과감한 도전. 그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모험성’의 유무가 가나안 땅 소유의 여부를 가렸던 것입니다.

### 김세환 칼럼



김세환 목사  
LA연합감리교회

어렸을 때 한국에서 입양되어 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미국인 백인 양부모 밑에서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 주었습니다. 대학도 잘 마쳤고, 현재는 열심히 군복무 중인 준수한 청년입니다.

하지만, 그는 무척 차가운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한국에서 입양되어 온 또래의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다른 청년들과는 달리 유독 이 청년만 자신의 “뿌리”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고,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끔 그와 이야기를 나눌 때면 자신은 자기를 포기한 생모(

生母)를 증오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한번은 제가 급하게 한국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생모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던 이 청년이 갑자기 한국 주소가 적힌 종이 한 장을 내밀며 저에게 자신의 생모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아주머니를 통해 듣는 이 쓸쓸한 이야기는 “제가 마치 어느 비극적인 영화의 중심 속에 휩쓸려 들어와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 가없는 젊은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되뇌 이름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청년의 이름

은 시간을 가슴 조렸을 그가 그날 그 동안 참고 참았던 굵은 눈물을 참으로 오랫동안 흘렸습니다.

젊은 아이가 그렇게도 열정을 다해 울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아직도 떨어뜨릴 눈물이 남아 있었는지 주차장으로 나아가 세워진 차에 시동을 걸고 멍하니 슬죽여 울던 그의 슬픈 눈망울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는 이 사건이 있던 이후로 아주 많이 변했습니다.

포근하고 살가운 청년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어김없이 자기를 “버려주신 사랑하는 어머니”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감사를 했습니다.

이 가을 동화 같은 이야기가 10년 전, 이맘 때 즈음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해마다 가을되면 그를 떠올리게 되는 이유입니다. 감사의 계절 11월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생각을 바꾸어 보면, 감사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여,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라”(데살로니가전서 5: 18)고 우리들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진리가 우리의 현실로 느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버려주신 은혜

그러나 그 주소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수소문해서 찾아가 보았더니, 참 가슴 아픈 사연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복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기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홀로 남은 젊은 어머니도 폐결핵에 걸려 아끼었던 그를 돌볼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의지할 친척도 없었던 어린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태어난 지 두 달 밖에 되지 않는 그를 “홀트 입양기관”을 통해 미국으로 입양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인천에 있는 작은 폐결핵 요양소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먼 친척 대신

입니다. 얼마나 사무치도록 그리운 이름이었을까요? “혹시, 안 좋은 직업에 종사하는 여인이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던 염려는 기 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다소 가벼운 마음으로 옮길 수 있었던 저는 미국에서 다시 만난 그에게 “너는 참 훌륭한 어머니를 돌이나 가졌다”고 축복해 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이를 악물고 혈육의 정을 “포기해 주신 어머니”와 전혀 다른 외모를 가진 동양의 아이를 자신의 소생으로 “받아 들여 주신 어머니” 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건강한 그가 있게 된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저와 같은 염려로 수많은

## 총신디지털

Chongsin Digital Lifelong Education



원정정서영 목사

본원은 최고의 교수진과 동영상 강의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만 있으면 수업이 가능하며, 수료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 교단에서 목사인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모집과정

과정	학과	이수과정	지원자격
신학부	신학과 기독교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4학년) 8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성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사명이 투철한 자 편입학 - 본원이 인정하는 신학대학(교) 및 신학교를 졸업 또는 수료한 자
		(2학년) 4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 . 국내 외 신학대학(교)에서 8학기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 각 교단 신학교 졸업자 편입학 - 본원이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에서 수료한 해당학년 학생 및 졸업자
신대원 전문	신학과 기독교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3학년) 6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국내 외 일반대학교(4년제)나 대학원 이상에서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편입학 - 학사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자 또는 타신학교에서 신대원과정 재학중인 자

### 특 전

- 방학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수료가 가능한 연령, 성별에 상관없음
- 여목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음
- 획기적인 장학제도로 학비가 저렴한
- 신대원과정 수료자는 목사고시의 필기고시를 면제함

### 구비서류

- 입학원서 (www.cds.re.kr 에서 접수 가능), 주민등록등본, 사진, 졸업증명서(편입자)

평생교육법 33조, 동법시행령 48, 49조 규정에 의한 원격교육기관 (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개혁총회가 인준한 사이버 신학 교육기관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0404

Classified Add



##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329-3535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20년 LA에서 가장 오랜 전통! 정육점의 원조 본점!

## 초이스 11가 정육점

USDA 프라임과 초이스 생고기만 판매  
양념 LA 갈비 / 교회, 단체 특별가!

블랙앵거스 프라이م 갈비살, 갈비, 꽃살  
차돌배기, 유기농 흑돼지 삼겹살 등...

< 자신있게 권해 드립니다! >

1134 S Western Ave #A5 Los Angeles CA 90006 (웨스턴 + 11가 12가 사이)

웨스턴 11가점 Tel (323) 733-4677

## Boston Hub Dental & Implant Center 보스턴 덴탈 & 임플란트 센터

10년 임플란트 식립 경험 전문 치과의사와 보철 전문의사가 최상의 임플란트 시술 및 보철물 제작임플란트 성공은 적절한 임플란트 식립과 치주 처치 및 보철물 제작에 달려 있습니다.

무통 임플란트 잇몸 절개 없는 임플란트  
수면 임플란트 (V Injection) 드릴 없이 심는 임플란트  
발치 즉시 임플란트 및 즉시 보철 제작 (Case by Case)

PRP & PRF 시술 (임플란트 주위 골 생성 촉진)  
오픈기법 임플란트 \$999 (limited 보철포함)  
특별할인 검진 + X-Ray + 클리닉 = \$40

치과 이식 • 보철치료 • 신경치료 • 구강외과  
보철임양: PPO, HMOA  
TEL: 714, 638, 4042 / 714, 638, 2141 (한국어)  
13031 Kerry St., Garden Grove, CA 92844

## Pacific General Insurance Agency, INC. 태평양 종합보험 (주)

비싼 보험료 때문에 아직도 고민하세요?  
저희 회사는 여러분의 사업체와 개인보험 위험을 없앨수는 없지만  
보험료 비용은 낮출 수 있습니다. (LIC# 0G17850)

상업보험전문 / 중업원상해보험 / 개인보험 / 생명보험 / 건강보험  
호텔, 그로서리, 세탁소, 상가건물, 아파트, 식품마켓, 교회보험, 각종비즈니스, 상업차량, Surety Bonds

☎ 323-378-6213 - Toll Free: 877-393-2311  
451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동양선교교회 앞)

## 치과 기공 기술 학생모집

(면허 소지한 원장이 직접 지도합니다)

10월 29일, 12월 19일 시험대비 CDP 치과기공 면허 응시생 모집  
CDT 치과기공 면허 준비반

- 4-6개월, 1년 과정, 기초부터 철저 지도, 현장실습, 취업알선
  - 가톨릭기속성 학생모집 (약스, 포셀린, 메탈 모델)
  - 전 치과 기공 대학 확장, 현 면허 시험 강사 특별 지도
  - 각종 장학금 혜택 목사님 추천서 10%DC
- 제퍼슨 치과 기공 대학 (213) 384-3006  
2140 W. Olympic Bl. #310 (윌셔은행 3층)

초기 이민자, 재취업 기술교육

## LA캐atering

주말 점심메뉴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Church Set (교회용식사) Menu D를 보십시오.

편리한 예약 상담 / 신속한 전적 서비스

www.lacatering.com

1-800-530-5660 / 1-800-711-0776

- 카레라이스 \$1.00 (1인당)
- 짜장소스 \$1.00 (1인당)
- 유채 콩나물국 \$1.00 (1인당)
- 김자 미역국 \$1.00 (1인당)
- 아재 비빔밥 \$1.20 (1인당)
- 고기 비빔밥 \$1.80 (1인당)
- 육개장 \$1.5 (1인당)

##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밀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넥, 건과류, 각종 공산품 등)
- 각종 Tea (커피, 등굴레, 홍차, 녹차 등)

☎ 818-306-7652

## 조립식 각종 선반 전문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리움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입니다.

(323) 855-5687 / (213) 200-3050  
646 S. San Pedro St. LA CA 90014 (산페드로 St, 6가 7가사이)

블라인드 커튼 전문 업체



Toll Free (888) 383-2209  
Direct (909) 821-9329  
Fax (626) 443-3100

HunterDouglas  
windows fashions  
Priority Dealer

MR 박은철 찾아주세요!

Home depot 보다

싼 가격 보장

공장 직판 wood shutter  
각종 Remote Control  
BLINDS 제작전문

655 Berry St. #F  
Brea, CA 92821  
citiblinds@gmail.com

Natural Hot Spring!

##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장!

1.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2. 가라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3.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4.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Elsinore Hot Spring Resort  
(951) 674-2581/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www.easy2424.com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 3개월 단기 과정으로

유아교사 자격취득

유아교사, 원장 Certificate Program

- 3개월 집중 과정으로 유아교육 현장 실습을 포함하는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졸업 후 Preschool, Day Care Center, Family Child Care에 취업 및 유아 교육기관 설립을 안내해 드립니다.

TEL. 714-932-9728  
12666 Brookhurst St, Garden Grove, CA 92840



'아토피, 비염, 천식' 한방으로 해결합니다.



## 편강환

- ▶ 30여개국 해외진출
- ▶ 7만명 이상의 환자 진료



스탠포드대학 (부속) 편강환방병원  
9618 Garden Grove Blvd., #221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539-6562 Fax. 714-539-9077

## CHOI AUTO

30년 경력, 정직, 성실로 봉사 하겠습니다.

323)732-3836  
Cell. 213-344-8098



1409 S. Western Ave. L. A., CA 90006 (Western + 15th)



## 이중창문교체전문

특별세일  
7월 21일

10개 기본창문 (햇빛차단 Low-E)  
\$2,699+Tax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 것 - VIVA BLIND

##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자체 전문 제작

- 커튼-맞춤전문 (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 온돌마루



TEL. (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 철공 콘크리트

웬스/자동모터, 방범창,  
계단, 철문, 자바라,  
주차장 라인, 콘크리트,  
아스팔트, 벽돌 담장

213-327-9929

## 방수, 루핑

LIC # 531243

지붕, 옥실, 벽, 텍,  
지하, 창문  
물새는 곳, 특수 방수  
공법, 완벽시공

CAP CONSTRUCTION

213-327-9929

## 크레딧카드 은행구좌

## 당일현금

- 한국구좌 및 신규구좌 가능
- 크레딧 7000이상(20만이상)

\*유학생 및 귀국자 특별플랜

T. 213-278-4466

## 한국방송+미국방송 동시 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결혼꽃 전문 꽃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 기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생일 꽃다발 (Bouquet)
- 장례꽃 (Funeral)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교회꽃 (Church)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 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2010 Christmas 성탄절

한가족 쌀 한포 10불 후원 모금 운동

미국 경제난으로 인한 어려움이 개인적으로 더욱 깊어져 가는 이 성탄의 계절에 2009년 사랑의 기적에 이어 올해도 우리 한인사회에 또 한번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기다려집니다. 전 한인사회와 기독교계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 펼쳐가는 이 나눔운동에 함께하시길.....

쌀 1만 5천포

배부일. 2010. 12. 18(토) 1차 나눔, 12. 30(목) 2차 나눔

미주 전 지역 20여곳의 나눔 장소

\* 먼저 쌀 1포 선물권을 받으시고 지정된 나눔장소에서 교환하시면 됩니다.

1. 남가주 1,200여 모든 교회에서 사랑의 쌀 나눔을 위한 특별 헌금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교회들마다 성탄절 사랑의 쌀 나눔 장소가 되어 주십시오. 한 가족 쌀 한포 후원운동에 우리 자녀들도 참여해 주시고 교회에 목적 헌금을 해 주십시오.
2. 한인 사회의 모든 단체와 직장들마다 성탄절 사랑의 쌀 나눔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3. 사랑의 쌀 나눔을 위한 사랑의 음악회에 다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현장에서 티켓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A석 20불-쌀 한포 선물교환권 증정 B석 10불, VIP석 50불-쌀 3포 교환권 증정
4. 사랑의 쌀이 필요하신 분이나 단체, 교회, 개인들은 전화나 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공동주최: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남가주한인목사회, O.C.기독교교회협의회, O.C.목사회, CGN TV LA총영사관, 한국일보 (라디오서울), 중앙일보 (중앙방송)
- \* 주 관: 미주(LA)성시화운동본부와 홀리 클럽
- \* 섬기는 분들: 김재수 총영사, 한국일보 사장, 중앙일보 사장, 박희민 목사, 한기형 감독, 송정명 목사, 민종기 목사, 변영익 목사, 한기홍 목사, 박용덕 목사, 엄영민 목사, 박호우 목사, 이성우 목사, 손태정 목사, 최문환 장로, 서영석 장로, 손수웅 장로, 김경수 장로, 박성규 목사, 이성현 목사, 옥세철 장로와 사랑의 쌀 나눔에 참여하는 100여개의 교회와 단체 대표 일동

문의및 연락처 : 미주(LA) 성시화운동본부와 홀리클럽

505 s, Virgil Ave. #160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4.5232, Fax.(213) 384.0055  
laholycity@yahoo.com , www.holycityusa.com

Pay to Order: Holy City -사랑의쌀

"사랑의 쌀 후원을 위한 음악회에 오시면 사랑의 쌀 선물교환권(A석-1포, S석-3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한 불멸의 선지자 생애를 담은 오라토리오

2010년 사랑의 쌀 음악회

Since 1969 LA 코리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LA Korean Philharmonic Orchestra  
with WMU Chamber Choir

Presents

“엘리아”  
Elijah

by f. Mendelssohn

2010 성/탄/절

Im Sang Yoon Conductor  
Kathleen Roland Soprano  
Cynthia Jansen Alto  
Robert MacNeil Tenor  
Injoon Jang Baritone

연주주관: LA 코리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LAKPO.com)  
문의 및 연락처: 미주 (LA)성시화운동본부와 홀리클럽 Pay to Order: Holy City-사랑의쌀 음악회  
505 S. Virgil Ave. #160 Los Angeles, CA 90020 www.holycityusa.com

Tickets VIP: \$50 A: \$20 B: \$10 예매처: 성시화 본부 213.384.5232, 한국일보, 중앙일보 LA 코리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13.387.4632

Dec. 5, 2010 Sun. 6:30 PM  
일 시: 12월 5일 (주일)  
장 소: 충현 선교 교회  
4565 W. Colorado Blvd L.A., CA 90039 (Tel)818-549-9191





**PH**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HAS IT**

2010년 모델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 단,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한정

# 추수 감사절 연장 세일

## 목회자 자체 용자 및 원가 세일

현재 남가주에서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들께 크레딧이 나쁘거나, 없으셔도 자체 용자 해 드리거나 원가 세일해 드립니다.  
(단, 2010년 new 엘란트라와 2010년 pre-owned 쏘나타 한정)

• 구입을 원하실 경우 전차종 원가 대우해 드립니다. •

### 11월 스페셜 세일

#### 2010년 NEW 엑센트



2010년 엑센트 GS (VIN # 172818)  
정상가 \$17,995 **세일가 \$13,999**  
(INCLUDE REBATE 1000, MILITARY 500, COLLEGE 400, PH D/C 1,196)

#### 2010년 NEW 엘란트라



2010년 엘란트라 GLS (VIN # 093924) 정상가 \$17,795 **세일가 \$12,999**  
(INCLUDE REBATE 1500, MILITARY 500, COLLEGE 400, H.M.F.C 1000 PH D/C 1,396)

2010년 엘란트라 GLS (VIN # 055411) 정상가 \$18,610 **세일가 \$13,899**  
(INCLUDE REBATE 1500, MILITARY 500, COLLEGE 400, H.M.F.C 1000 PH D/C 1,311)

2010년 엘란트라 GLS (VIN # 053362) 정상가 \$18,690 **세일가 \$13,899**  
(INCLUDE REBATE 1500, MILITARY 500, COLLEGE 400, H.M.F.C 1000 PH D/C 1,391)

2010년 엘란트라 SE (VIN # 091984) 정상가 \$19,360 **세일가 \$14,299**  
(INCLUDE REBATE 1500, MILITARY 500, COLLEGE 400, H.M.F.C 1000 PH D/C 1,661)

2010년 엘란트라 SE (VIN # 090605) 정상가 \$19,410 **세일가 \$14,399**  
(INCLUDE REBATE 1500, MILITARY 500, COLLEGE 400, H.M.F.C 1000 PH D/C 1,611)

#### 2010년 NEW 제네시스



2010년 제네시스 쿠페 2.0T MT (VIN # 041505) 정상가 \$25,625 **세일가 \$21,599**  
(INCLUDE LOYALTY 1000, MILITARY 500, COLLEGE 400, PH D/C 1,126)

2010년 제네시스 쿠페 2.0T MT (VIN # 042493) 정상가 \$23,235 **세일가 \$19,699**  
(INCLUDE LOYALTY 1000, MILITARY 500, COLLEGE 400, PH D/C 1,636)

#### 2011년 NEW 쏘나타 GLS



2011년 최신형 쏘나타 GLS (VIN # 157254) 정상가 \$21,254 **세일가 \$18,199**  
(INCLUDE LOYALTY 500, MILITARY 500, COLLEGE 400, PH D/C 1,681)

상기 모든 모델을 어느 딜러보다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재고를 보유한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품위있고, 쾌적한 넓은 매장에서 친절한 각국의 세일즈맨들의 친절한 서비스를 받아 보세요. 진심으로 만족 하실 것입니다.

## 11월 중고차 매니저 스페셜

이외에도 사고 없는 딜러가 보장하는 많은 중고차 보유하고 있습니다.

### 매니저 원가 공개 세일



2009 HYUNDAI ELANTRA BLUE STK P755456 **\$14,990**



2009 HYUNDAI GENESIS BLACK STK P018925 **\$28,900**



2009 HYUNDAI SANTA FE SILVER STK P253216 **\$17,995**

- 2007 BMW (WHITE) 328I STK PZ70863 **\$22,888**
- 2007 BMW (BLACK) 328XI STK PP31167 **\$26,888**
- 2007 HUMMER (YELLOW) H3 STK P126552 **\$24,888**
- 2008 HYUNDAI (GOLD) ENTOURAGE STK P051414 **\$18,488**
- 2009 TOYOTA (WHITE) TACOMA STK P640770 **\$16,999**

### - 매니저가 권하는 중고차 세일 -

- ▶ 2007 HYUNDAI AZERA GRAY STK P185167 **\$17,888**
- ▶ 2008 HYUNDAI AZERA BLACK STK P332058 **\$20,888**
- ▶ 2009 HYUNDAI GENESIS 3.8 GRAY STK P046436 **\$29,888**
- ▶ 2009 HYUNDAI GENESIS 3.8 SILVER STK P019812 **\$28,888**
- ▶ 2009 HYUNDAI GENESIS 3.8 WHITE STK P048693 **\$34,888**
- ▶ 2010 HYUNDAI SANTA FE GRAY STK P337186 **\$21,888**
- ▶ 2009 HYUNDAI SONATA BLACK STK P440119 **\$13,888**
- ▶ 2010 HYUNDAI SONATA BEIGE STK P581165 **\$15,888**
- ▶ 2010 HYUNDAI SONATA WHITE STK P597224 **\$14,888**
- ▶ 2008 HYUNDAI VERACRUZ WHITE STK P057661 **\$22,8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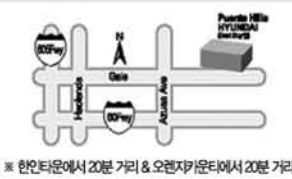
**FREE CAR WASH EVERY SATURDAY 9AM-NOON**

**\$19.99 Oil Change and Car Wash**  
For All Hyundai Owners + 27 Point Inspection. First time customers only. Available any day. Call for an appointment. Present coupon at time of write-up.

세일즈 시간 월~토요일 9:00am~9:00pm  
일요일 10:00am~8:00pm

서비스 시간 월~토요일 7:30am~6:00pm  
일요일 8:00am~2:00pm

"서비스는 친절한 한인담당 Mr. 박을 찾아주세요"



**PH 푸엔테힐스 현대 T. 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 WWW.PHHYUNDAI.COM

**CARFAX**  
VEHICLE HISTORY REPORTS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Right now, finance or lease a new Hyundai, and if in the next year you have your first incident, we'll let you off the hook.